

국 성 문 학

1997년 제4집

국 성 문 화 원

이 고장 문학발전의 초석이 되길!



김 길 영
(곡성문화회장)

산이 많은 골짜기고 예로부터 이름난 곳 그래서 곡성이라 하였던가. 다른 지역은 산업화의 물결로 지형은 물론 인심조차 변했다고 하지만 오지란 이름을 돌려 쓴 이 땅만은 옛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웅장하고 푸르른 통명산 자락의 숲들은 물론 유유한 섬진강의 흐름도 옛날 그대로다.

풍류의 고장이란 속담이 허구가 아닐까? 이 지역 출신으로 경향각지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것은 수려한 향리의 정기를 이어받은 까닭이 아닌가도 싶다.

다른 지역에는 문인들의 모임체가 있어 주기적으로 작품집을 발간했으나 유독 우리 지역에서마는 이런 행사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마침 이 지역에서도 늦은 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임체인 곡성문학인 창립총회가 열려 결성된 지 불과 몇 개월 영

영 햇빛을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이 고장 문학이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현대에 살고있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문학가치 의식을 일깨워 줌은 물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어 오랜 숙원이 이룩된 것처럼 기쁜 마음 금할 길 없다.

살아간다는 것에 얽매어 좌충우돌하는 현실, 더구나 경제파탄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노라면 대견스런 마음조차 앞서는 것이다. 이 지역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절감하였다. 조그만 소망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때늦은 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화사업에 열정을 쏟았던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 억누를 수 없다.

곡성문학 발전을 축하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옛동산을 생각하며

이 재 백
(곡성문학회장)

아람드리 소나무, 수백년을 파란 하늘만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는
이름 모를 나무들, 다닥다닥 낀 푸른 이끼로 칠갑을 한 거대한 바위덩
이들…….

찬바람이 몰아치는 황야, 누렇게 단장해버린 산하에는 승냥이의 울
음소리라도 들렸으면 하는 긴 바람은 현대화의 물결로 각박해져버린
이 세상을 외면하고픈 새로운 향수가 만들어 놓은 억지 푸념인 줄 모
른다.

원시예의 밀림을 사랑하고픈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리는 이따금
이런 환영에 잠긴 나머지 태고적으로 회귀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힌다.

흥시가 대롱거리던 마을을 지금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통명산 깊은 골짜마다 흐르는 자그만 개울물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던 섬진강은 그 운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 산하, 그 하늘빛도 옛 그대로였으면 하는 소망은 꿈만이
아닐 것이다.

다른 지역처럼 산업화를 외면한 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고향을 다시금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은 희열의 순간이
다. 삶 자체를 고역의 연속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풀이하는 것과 다름

이 없을 것이다.

등걸만 앙상하게 남은 고목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솟아나는 경이로
움.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땅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쑥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쯤 해야 할 일이다.

통명산의 산그늘이 우리의 가슴에 안겨줬던 우수의 흔적이 이제야
고개를 치미는 까닭은 무엇일까?

뿔뿔히 흩어져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이 지역 출신들이 문학작품
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역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의 한계점일 수도 있지만 나름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문학이라는 것도 삶의 이야기
이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탄생된다면 긴 여로중 삭막한 풍경과 아름다
운 이야기들도 필요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할 줄 모르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몰랐
던가, 하는 생각이 앞서기도 하지만 이제야 깨달은 것도 기쁨의 폭을
더해주는 걸로 자위할 따름이다.

오늘도 섬진강은 흐른다. 유년의 뜨락에서 은빛으로 빛나던 백사장
의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일 뿐이다. 이런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길영 문화원장님, 정병택 사무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될 계기

조 형 래

(곡성군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학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군 문학인의
승고한 작가정신과 회원의 협조가 어우러져 우수작품들은 한데 모아
『곡성문학』을 발간하게 된 것을 4만여 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아울러 향토출신 문학인들의 혼과 열이 담긴 『곡성문학』이 창간됨
으로써 이 고장 문학 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며 문학을 사랑하
고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창작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을
생각하니 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합니다.

곡성문학의 창간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군민들의 사기
가 저하되고 인정이 매말라 문학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옥같은 한 편의 시들이 군민의 정서 순화에 도
움이 되고, 우리 지역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문학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났고 살아왔던 고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은 변할 수 없고 고향을 어머니 품처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곡성문학』 발간이 이처럼 정다운 우리 고향 곡성출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곡성문학의 무궁한 발전과 왕성한 활동으로 곡성문학 발전의 디딤돌과 출발점이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 12.

국성문학

- 발간사·4
- 머리말·6
- 축간사·8

시

- 임 보 운주천불 外 9편·14
- 조태일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外 7편·30
- 고재종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外 6편·42
- 차창룡 구름 外 6편·56
- 강동식 위기 外 5편·70
- 김영박 바람에 묻어오는 소리 外 9편·80
- 김정숙 적막한 마을 外 6편·92
- 김진문 병동 아리랑 外 4편·100
- 서종규 옥과장터·1 外 6편·108
- 송미수 송광사 겨울 편지 外 4편·122
- 신현영 세월 속에서 外 4편·132
- 양은찬 어린 날의 아버지 外 7편·138
- 윤석주 마음속 길 하나 지우며 外 8편·152
- 윤석진 강마을 外 6편·162

170·늦가을 外 4편	이종인
180·아름다운 곡성 外 6편	차경섭
188·설날 外 3편	차의섭
196·春夜獨酌 外 3편	안태봉

수필

208·소설을 위한 이야기 시	남성숙
220·초년병 시절	차운영

소설

226·장마	공선옥
248·어두운 터널	이재백

평론

268·소외와 길찾기의 어려움	송현호
------------------	-----

277·회원주소록

278·편집후기



임 보

광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문과 졸업, 성균관대학교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받음, 1962년 《현대문학》지를 통해 詩壇에 등단, 시집으로 『林步의 詩들 59-74』 『山房 動動』 『木馬日記』 『은수 달 사냥』 『황소의 뿔』 『날아가는 은빛 연못』 『겨울, 하늘소의 춤』 등, 현재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교수로 있음.

시

●

雲舟千佛

木寺洞詩

牡丹詩人

寒食

醉夜

桃源行

頭輪山

後隱詩

황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운주천불(雲舟千佛)

그 옛날 백제(百濟) 고을 멩텅구리 숙맥들
개똥이 쇠똥이놈 때로들 부쳐되어
이목구비(耳目口鼻) 수족(手足) 불알 다 뭉개버리고
온 산천에 널브러져 흘러가고들 있네.

목사동시(木寺洞詩)

보성강(寶城江) 지나다 옛 정에 걸려
아미산(峨帽山) 밑 이백가(李白家)를 들렀더니
벽오동 섰던 자리 찾을 길 없고
석류꽃만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모란시인(牡丹詩人)

강진(康津) 고을 영랑가(永郎家)를 찾았더니만
모란꽃 유자꽃은 흔적도 없고
임자 없는 빈 터에 바람만 가득
동백씨만 우두둑 떨어집니다.

한식(寒食)

동리산(桐裏山) 깊은 골짜기 봉황(鳳凰) 찾아갔더니
참오동 벽오동은 흔적도 없고
태안사(泰安寺) 묵은 절방 추녀 끝에는
청동어(靑銅魚) 몇 마리만 울고 있어요.

취야(醉夜)

조부모님 산소(山所) 찾아 죽촌(竹村)에 갔다가
강(江) 건너 옛 마을에 들렀더니만
소식 듣고 모여든 불알 친구들
소주에 옛 얘기로 밤도 거나합니다.

도원행(桃源行)

내장사(內藏寺) 드는 길은 무릉(武陵)일레
백양사(白羊寺) 고개 넘어 내려가는 길
달팽이 대궐 같은 내장산(內藏山) 계곡
흐드러진 천자만홍(千紫萬紅) 도원(桃源)일레

두륜산(頭輪山)

산의 서편엔 초의(艸衣)의 일지암(一枝庵)

산의 동편엔 다산(茶山)의 초당(草堂)

산의 높이는 백 리가 넘건만

술과 차 들을 빚어 밤마다 오고가고

후은시(後隱詩)

후은(後隱)은 내 조부의 호다.
그가 인제(麟蹄)를 떠나
석곡(石谷) 등구(登龜)의 대나무 숲 속에 자리를 잡고
농로(農老)로 그렇게 한 세상을 마친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땃 살 적부터 그 분 사랑에서
글자를 익히며 살아온 나는
서울 유학을 마칠 때까지도
통 알 수가 없었다.

아들도 없이 손자 하나 데불고
자주 섬진강가 강바람에
명주 옷자락을 날리시던 그 분
내가 군에서 제대하기 기다렸다가
홀연히 떠나던
그의 외로운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한평생 숨어 살던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겨울밤

대수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 깨어 먹을 가시던 그 분
그런데 어인 일로
그가 내 손에 남기신 묵적(墨蹟)은
단 두 편의 시
그것도 파지에 적어
책갈피에 꽂아 둔 초고인 걸 보면
이렇게 남게 된 것도
당신의 뜻은 아니었던 모양

나는 불혹이 넘도록 시를 하면서도
그 분의 유묵 몇 점 못 간직한 것이
두고 두고 서운키만 했는데
오늘 아침 내 나이 천명(天命)에 들면서
이제야 그 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 등 뒤에 숨어서 소곤대는
그 소리를 비로소 들었다.
지상의 흔적 다 거두어 떠나려 했던
후은(後隱)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겨우 백여 년 내다보고 사는데
수만 년 유유(幽幽) 속에서 소요했던
그 분을…….

황소

나는 소입니다.

빨을 두 개나 가진 황소입니다.

내가 한 살 넘던 가을, 당신들은 내 코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코뚜레로 나를 얹었습니다.

발을 갈았지요. 무논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또 우리들의 젖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 새끼들의 목을 적실 그 피 나는 젖을

매일 아침 내 아내의 가슴에서 밟아 짜 갔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그냥 넘김시다.

내 어미 애비 나이 들어 들판에 나가기 힘들었을 때

그들은 팔려갔지요. 도살장에 끌려갔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던가요?

고개를 하늘로 달아매 물을 먹이고, 배가 터지게 물을 먹이고

몽둥이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 살을 불려 죽였지요.

안심, 등심, 홍두깨, 내장……

이렇게 당신들은 우리 부모들의 육신을 발발이 찢어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죽으로는 당신들의 신발을 깎고, 더러는 북을 만들어
당신들의 축제를 신나게 울렸습니다.

그 북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둥둥둥둥……그 북채에 묻어 나는 가죽의 울림——그것은 우리들

영혼의 울음입니다.

무엇을 더 드릴까요?

이제 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당신들의 권능을 얼마나 더 누리시겠습니까?

나는 황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들판도 들판도 누비며 달렸던

나는 바로 그들의 후손,

아직 뿔을 두 개나 가진 살아 있는 황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미쓰 김

너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와 사랑에 빠져

남해 매물도섬에 가서

한 보름쯤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내는 제 것을 뺏겼다고

아우성을 칠까?

제자들은 딸 같은 처녀와 달아난 교수에게

저주를 할까?

그러면 미쓰 김 아무도 몰래

한 반 년쯤 그렇게 폭 사랑에

처박혀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내는 내가 돌아오도록

밤 새도록 철야기도를 드리고

제자들도 그쯤 되면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마음이 누그러들질까?

그러면 미쓰 김
우리 한 10년쯤
아예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온 세상이 우리를 다 잊고
우리도 이 세상 다 잊을 수 있는
그때까지 미쓰 김
두 개의 작은 섬으로
파도에 발이나 닿으면
어떻게 될까?



조태일

1964년 〈경향신문〉 신춘
문예로 등단, 시집으로
『아침선박』 『식칼론』 『국
토』 『가거도』 『자유가 시
인더러』 『산속에서 꽃속
에서』 『풀꽃은 꺾이지 않
는다』 등, 제9회 만해문학
상 수상, 현재 광주대 예
술대학장

시

●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풀씨
꽃들, 바람을 가지고 논다
봄비
달빛
동리산에서
봄이 오는 소리
태안사 가는 길 1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풀꽃을 꺾는다 하지만
너무 여리어 결코 꺾이지 않는다.

피어날 때 아픈 흔들림으로
피어 있을 때 다소곳한 몸짓으로
다만 웃고만 있을 뿐
꺾으려는 손들을 마구 어루만진다.

땅속 깊이 여린 사랑을 내리며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노래 되어 흔들릴 뿐.

꺾이는 것은
탐욕스런 손들일 뿐.

풀씨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햇볕 하염없이 뛰노는 언덕배기면 어땡고
소나기 쓴살같이 꽃히는 시냇가면 어떠리.
온갖 짐승 제멋에 뛰노는 산속이면 어땡고
노오란 미꾸라지 꾸물대는 진흙밭이면 어떠리.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출 곳 없어 언제까지나 떠다니는 길목,
그곳이면 어떠리.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꽃들, 바람을 가지고 논다

꽃들, 줄기에 꿈쩍 못하게 매달렸어도
바람들을 잘도 가지고 논다.

아빠꽃 엄마꽃 형꽃 누나꽃 따라
아기꽃 동생꽃 쌍둥이꽃
바람들을 잘도 가지고 논다.

바다에서 파도를 일으키며 놀던 바람도
산속에서 바윗덩이를 토닥이며 놀던 바람도
공중에서 날짐승을 날게 하던 바람도

꽃들 앞에선 오금을 쓰지 못한다.
꽃들 앞에선 그 형체까지를 잃는다.

팔다리를 몸통 줄기에 붙들렸어도
그 자태만으로 바람의 팔다리를 묶으며
그 향기만으로 바람의 형체를 지우며

잘도 가지고 논다.
잘도 달래며 논다.

봄비

젖어버리자 젖어버리자고
우산도 버리고
저벽저벽 걸어서 예까지 왔다.

흙은 간지러워서 발밑에 누워 있고
나무들은 모두
어깨를 걸면서 산으로 오르고 있을 때,

봄비에 취해
나 예까지 와서
홀로 거닐면서
무엇을 부끄러하라.

알몸으로 천번이고 만번이고
세상을 껴안는다.

달빛

달빛 속에서 흐느껴 본 이들은 안다.

어쩌서 달빛은 서러운 사람들을 위해
밤에만 그렇게 쏟아지는지를.

달빛이 마냥 서러워
새들도 눈을 감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세상을 껴안을 때
멀리 떠난 친구들은 더 멀리 떠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기별들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듯 멀어만 가고.

홀로 오솔길을 걸으며
지나온 날들을 반성해 본 사람들은 안다.
달빛이 서러워 오늘도
텅 빈 보리밭에서 통곡하는
종달새들은 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세상을

힘껏 껴안으며 터벅터벅
걷는 귀가길이
왜 그리 찬란한가를 아는 이는 안다.

동리산에서

날이 쌀 무렵
어둠 더불어 빨치산들이 산으로 오른 뒤,
골짜기 대밭에서
죽순 서로 키재기하는 걸 보고
나는 무럭무럭 자랐다.

어린 짐승새끼
어미 잃고 집 잃어 밤새 울어쌀 때
동리산 품 같은 어머니 가슴 파고들어
속으로 끼이끼이 울며
나도 밤을 썼다.

홍시감 익어갈 때,
홍사초롱 수천 개씩 가지 휘어져라 매달릴 때,
아랫집 남순이랑 얼굴 붉히며
원종일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그 빨치산들 다 어디 갔나
그 어린 짐승 자라서 다 어디 갔나

그 죽순 자라서 어디 갔나
그 홍시 다 어디 갔나
그 남순이 어디 갔나.

봄이 오는 소리

어렸을 적,
발바닥을 포개며 뛰놀던
원달리 동리산 태안사에서
봄이 밟는 발자국 소리
여기까지 들려오네.

살얼음 밑에서 은빛 비늘 희살대며
봄기운에 흐물거리던 피래미떼들도
광주의 내 눈에 가득 넘치네.

지금 종달새 노래 그쳤어도
새싹이 다투어 돌아나는 곳,

그곳을 향해
모든 일 젓혀놓고 눈을 감네.

태안사 가는 길 1

나라가 위태로웠던 칠십년대 말쯤
아내와 어리디어린 세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 떠난 지 삼십년 만에
내가 태어났던 태안사를 찾았다.

여름 빗속에서 칭얼대는
아이들을 걸리며 혹은 업으며
태안사를 찾았을 때
눈물이 피잉 돌았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신년 겨울,
팔십을 바라보는 어머님을 모시고
아내와 이젠 웬만큼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터벅터벅 태안사를 찾았을 땐

백골이 진토 된
증조부와 조부와 아버님이
청화 큰스님이랑 함께
결결겅 웃으시며
우리들을 맞았다.



고재종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시집 『바람부는 숲
숲에 사랑을 내몰고』 『새
벽들』 『사람의 등불』 『날
랜사랑』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시와사람》
편집주간

시

●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綿綿함에 대하여
그 희고 둥근 세계
들길에서 마을로
불빛 진 자리 별빛 돌아
수숫대 높이만큼
坐忘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그토록 흐르고도 흐를 것이 있어서 강은
우리에게 늘 면면한 희망으로 흐르던가.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듯
굽이굽이 굽이치다 끊기다
다시 온몸을 세차게 뒤틀던 강은 거기
아침 햇살에 샛노란 승어가 튀어오르게도
했었지. 무언가 다 놓쳐버리고
문득 황황해하듯 홀로 강둑에 선 오늘,
꼭 가뭄 때문만도 아니게 강은 자꾸 야위고
저기 하상을 가득 채운 갈대숲의
갈대잎은 시퍼렇게 치솟아오르며
무어라 무어라고 마구 소리친다. 그러니까
우리 정녕 강길을 따라 거닐며
그 윤기나는 머리칼 치렁치렁 날리던
날들은 기어이, 기어이는 오지 않아서
강물에 빨은 쓴 약의 시간들은 저기 저렇게
새까만 암죽으로 끓어서 강줄기를 막는
것인가. 우리가 강으로 흐르고
강이 우리에게로 흐르던 그 비밀한 자리에
반짝반짝 부서지던 햇살의 조각들이여,

삶은 강변 미루나무 잎새들의 과닥거림과
저 모래톱에서 씹던 단물 빠진 수수깡 사이의
이제 더는 안 들리는 물새의 노래와도 같더라.
흐르는 강물, 큰물이라도 좀 졌으면
가슴 팍 막힌 그 무엇을 시원하게
쏟어버리며 흐를 강물이 시방 가르치는 건
소소소 갈대잎 우는 소리 가득한 세월이거니
언뜻 스치는 바람 한자락에도
심금 다잡을 수 없는 다잡을 수 없는 떨림이여!
오늘도 강변에 고추명석이 널리고
작은 패랭이꽃이 흔들릴 때
그나마 실낱 같은 흰줄기를 뚫으며 흐르는
강물도 이렇게 그리움으로 야위었다는 것인가.

綿綿함에 대하여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그 희고 둥근 세계

나 힐끗 보았네
넷갈에서 목욕하는 여자들을

구름 낀 달밤이었지
구름 터진 사이로
언뜻, 달의 얼굴 내민 순간
물푸레나무 잎새가
얼른, 달의 얼굴 가리는 순간

나 힐끗 보았네
그 희고 둥근 여자들의
그 희고 풍성한
모든 목숨과 神出의 고향을

내 마음의 천둥 번개 쳐서는
세상 일체를 감전시키는 순간

때마침 어디 판세상에서인 듯한
풍덩거리는 여자들의
참을 수 없는 키득거림이여

때마침 어디 마을에선
혹, 끼치는 밤꽃 향기가
밀려왔던가 말았던가

들길에서 마을로

해거름, 들길에 선다. 기엄기엄 산그림자 내려오고 길옆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벼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속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쪽쪽쪽쪽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sap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붉새가 북새질을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찌려고 웬 속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려.

불빛 진 자리 별빛 돌아

궁산리 고성리 마을들 저문다
해종일 땅으로 등 굽히고 돌아와
금새 문짝에 거미줄 쳐버린,
그 굴속 같은 집 일으켜 세워
안간힘으로 밝히는 전등불.
누구 하나 호명할 리 없건만
체념 하나를 되레 삶의 수레로 삼은
사람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산 밑 마을에서 먼저 켜면
물아랫말까지 슬금슬금 밝힌다.
저 두정리엔 일곱 등이던 것이
한 등 줄은 게 어제다. 빠진 앞니처럼
행한 그 자리 자꾸 보면
저 산내로 가는 길도 끊기고, 그 길
먼 데로 드는 문도 닫힐 듯하다.
하지만 아껴 쓰는 전등불 꺼진들
하느님만큼은 기억하게끔
몇 점 외등은 남기는 마을 위로

이제 불빛 진 자리 별빛 돌아
삶의 숨결처럼 오롯이 돌아
온 밤내 생생하게 반짝이는 그것들.
대치리 와산리 언덕 위
대낮보다 휘황한 러브호텔 위에서야
끝내 눈을 감아버린 저 별 낱알에
눈물의 등불 하나하나가
그렇그렇 걸려 있는 것 보아라,
삭풍에 잘 닦인 건 별들만이 아니다.

수숫대 높이만큼

네가 그리다 말고 간
달이 휘영청 밝아서는
댓그림자 쓰옥 쓰옥
마당을 잘 쓸고 있다
백 리 밖까지 확 트여서는
귀뚜라미 지저지저지저
너를 향해 타전을 하는 데
아무 장애는 없다
바람이 한결 선선해져서
날개가 까실까실 잘 마른
씨르래기의 연주도
씨르릉 씨르릉 넘친다
텃밭의 수숫대 높이를 하곤
이 깊고 푸른 잔을 든다
나는 아직 견딜 만하다
시방 제 이름을 못 얻는
대숲 속의 저 새울음만큼.

坐忘

어젠가 그 언젠가
나주군 금천에 가서
배꽃 보다 돌아왔네
때아닌 시설 덮인 풍경의
온 마을의 배꽃바다,
나 아무 걱정 없이
연락도 없이
거기서 사라지고 돌아왔네
워매, 바람 좀 자거라
저놈의 배꽃 다 저부네
거기 금천다방의 미스 홍,
그 장탄식, 하얀 정은
꿈이던가 생시던가
한 세상 더듬었네
더듬는 마음마저 아득해지다
나 그 바다 어디쯤에서
한 잎 배꽃으로 날리거나
들고 난 자취도 없이
내 한 서러움 사라지던
어제던가 내일이던가

나주군 금천에 가서
배꽃 보고 돌아왔네
梨花에 月白은 못 보고
그 청초 향기도 못 듣고
나 거기 두고 돌아와
앉은 자리
환한 자리,
배꽃바다 없는 자리



차창룡

조선대 법학과와 중앙대
학원 문예창작과 졸업,
1989년 《문학과 사회》 봉
호로 시단에 등단, 1994
년 〈세계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 당선, 1994년
제13회 김수영문학상 수
상, 시집으로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미리 이별
을 노래하다』

시

●

구름

花傷

첫사랑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목탁·10

새벽 귀가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구름

젖소의 등에는 늘 구름이 출렁
왜 도대체 이렇게 몽게구름
등에 지고 다니니
물어봐도 젖소는 말이 없네
커다란 눈에도 구름이 끼어

하늘이 구름을 짜서 눈비 내리듯
젖소는 등에 진 먹구름 짜서
양동이에 흰구름 쏟네
저것이 내가 먹는 우유란다
아빠 말씀에 우유도 짹짹해지네

아침마다 먹는 우유 고소한 우유
그 우유가 젖소의 구름이라니
고맙고도 슬퍼라 젖소의 구름
저 먼 하늘에서 송아지 울고
젖소는 우유처럼 뽀얗게 보여

花傷

꽃이란 참 뜨거운 것이군
자신을 태워 열매를 익히다니

남자는 여자에게 꽃을 바치네
여자는 남자에게 꽃이 되네

왜 하필 꽃이라 해서 너를 사랑하게 하느냐
똥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에게 똥을 바치네
남자는 여자에게 똥이 되네

똥이란 참 뜨거운 것이군
똥을 쥐다가 화상을 입었네

첫사랑

첫사랑이라고?

웃기지 마라.

꽃들은 순 나쁜 연놈들이다.

부모의 몸에 빨대를 찌르고

똥을 高麗葬시킨,

하늘과 연애하는 꽃들은

순 호로자식들이다.

존속살해죄로

똥이 될 것이다.

첫사랑이라고?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처음이 구름떼처럼 몰려와 똥을 짊

똥냄새가 나는 꽃만이 용서받으리.

이미 벌 받았으므로.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오늘은 봄을 만나

겨울에 나무를 만나면 쓸쓸해지느니
무념무상의 열반에 잠겨 있는
뼈만 남은 參禪으로 봄을 길어올리는 나무는
봄이 올라올수록 땅속으론
무덤을 파느니 미리
무덤을 파기에 쓸쓸함 없느니

중생은 아프네
아프지 않은 나무를 보니 아프네
나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나무는 아프지 않은데 자기는 아프기 때문에
더욱 아프네 중생은
아프지 않기 위해선 미리
무덤을 파거나

나무와 이별해야 하네
나무와 이별하는 건
아직 제 얼굴을 갖추지 못한 나뭇잎과 미리
이별하는 것

제 눈곱도 떼지 못한 꽃과 미리
미리 이별하는 것

겨울에 나무를 만나면
미리 이별해야 하네

꽃을 만나기 전에 미리
꽃과 헤어져버린다면
세상에 아픈 나비도 없을거니
나비라는 아픔도 없을거니
나비라는 병(病)도 없을거니

병을 만나 한 잔 하기 전에
병과 헤어지면
병의 괴로운 술주정도 없을거니

병과 헤어진다 만나기 전에
헤어짐의 술잔을 살며시 들어
있지도 않은 병에게 붓고
병의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병의 곁에서 멀어지느니
병의 곁에서 멀어지자 병이 없듯이
병은 없느냐
나라는 병도 없느냐
이별 또한 병을 떠났느냐

넋두리

이번 봄과 이별하는 것은 다음 봄과 미리 이별하는 것일까?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 또한 없듯이, 겨울에 사랑하면 꽃이 피듯이, 겨울에 미리 사랑을 떠나면 꽃도 없는 것일까? 꽃이라는 단맛이 없으면, 꽃이라는 쓴맛도 없는 것일까?

물음표에서 나비가 꿀을 탄다. 꿀이라는 물음표와 이별하는 나비는 나비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비는 나비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해탈이 인간의 완전한 완성이고, 나비의 자기로부터의 완전한 이별은 나비로서의 해탈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비는 나비와 이별해야 한다. 최소한, 이번 나비와 이별함으로써 다음 나비와는 만남도 없이 이별해야 한다. 완전한 이별을 완성해야 한다. 나비여, 먼저 물음표부터 멀리하라. 미리 이별하라.

목탁 10

노을은 불 아닌 불
물 아닌 물
화산으로 타오르는 촉촉한 불
화산으로 타오르는 건조한 물
펼펼 끓는 미지근한 불
활활 타오르는 찬물

노을은 타오르는 물의 그림자
끓는 불의 그림자
훨훨 타오르는 물의 그림자가 배설한 불의 그림자
팔팔 끓는 불의 그림자가 배설한 물의 그림자
불의 그림자를 잡아먹고 물의 그림자를 낳은 그림자
물의 그림자를 잡아먹고 불의 그림자를 낳은 그림자

노을은
내 고향 해름관을 장식하는 저녁중
아무런 소리도 없는 저녁중
소리없이 소리치는 저녁중
아 그러나 그 저녁중
동틀 무렵에도 동쪽 하늘 별정계 소리치니

해가 뜨는 건 결국
해가 지는 것

노을은 삶의 저녁이요 죽음의 아침이라
나는 노을을 사랑한다
온 세상을 오묘한 색깔로 물들이고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질세가인처럼
하늘 가득 뒤덮는 거대하고도 투명한 봉새
그가 오면 나는 시간을 잇는다
시간도 나를 잇는다
시간과 나는 하염없이
언덕배기에 앉아 있다

옷자락을 만진다
훨훨 타오르고 팔팔 끓는 물에도
팔팔 타오르고 훨훨 끓는 불에도
훨훨 타오르고 팔팔 끓는 옷자락이
팔팔 타오르고 훨훨 끓는 내 몸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다
노을은 그림자이므로

불이면서 불이 아니고
물이면서 물이 아니므로
눈 지그시 감고 타오르는
물과 불의 잿더미 속
덜 익은 어둠일 뿐이므로
그리하여 노을은 거미줄이다
자신의 거미줄에 걸려 죽는 거미다

밤이라는 곤충이 거미줄에 걸리면
죽은 거미는 밤을 잡아먹고
밤이 된다
죽음을 잡아먹고
죽기 전에 미리 죽어 있는
완전한 아침이다

새벽 귀가

하루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새벽비
새벽비 홀로 맞으며
돌아오는 길
하루의 절벽을 기어올라
돌아가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 멀어지는 길
아무도 없고
즐거웠던 시간만 발자국으로 남는 길
새벽비가 열심히
발자국을 지우는 길
새벽비가 하루를 지우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길
가로등은 꿈쩍도 않는 길
발걸음만 비틀거리는 길
범종 소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퍼지는 길
차도 없는 길
새벽길은 뺨 뚫린 길
내 마음만 막혀

비는 내릴 수 없는 곳으로 내리네

비는 절대

내릴 수 없는 곳으로 내리네

쌓이네

하루를 씻으며

하루가 쌓이네

새벽비는

자꾸만

쌓이네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오늘은 이슬을 만나

햇빛을 담백 머금은 이슬
햇빛 떨어질까봐
입술을 꼭 다문 이슬

이슬 떨어질까봐
발소리 죽이며 이슬로 가네

이슬 알아차리고
떠나버릴까
숨소리 죽이고 이슬로 가네

이슬
어느새 알아차리고 이슬로 사라지네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눈빛
이슬이었네

젖은 당신이 화산으로 타오르기 전
아니 당신을 만나기 전
당신은 이미

당신을 떠났던 거지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만났다는 환상일 뿐

색깔을 바꾸어

어둠으로 깔릴 뿐

강동식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1995년 《장르문예》
를 통해 등단, 시집으로
『감꽃 피는 마을』등

시

•

위기
나는 局外者
큰마당
뱃사공
나의 기원
가을밤의 코스모스

위기

건너편 산골짜기에서
들리는 쇠바람소리
나무숲에서 빠져나온
날쌔 비호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

겉에 질린 나는
살기 위해
높은 나무 위로
뛰어 오르려는 찰라에
바짝 다가온 비호는
나의 곁을
질풍노도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 아찔
정신이 몽롱해진다
질겁을 하는 동안
사방은 고요해지고

붉은 단풍잎 하나 떨어져 나린다.

꿈이었구나

식은 땀을 씻어낸다.

나는 국외자(局外者)

한발 앞서서
기차가 지나가 버린
텅빈 역사에
나 혼자 외로워서
먼 들판을 바라본다.

무료한 시간은 이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절박한 처지인데
다음 기차는 오지 않고 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보며
역사(驛舍) 부근의
코스모스 피어 있는 트랙을 따라
깊은 옛꿈에 젖어든 사이
어느덧 달려온 막차마저
지나가 버리고

나는 영원한 국외자

혼자 처져서
시름시름 가슴을 태우는
숙명처럼 기다려야 하는 나그네

큰마당

그때가 오게 되면
마당놀이가
우리들의 꿈놀이가 되겠지

그때가 되는 날엔
한바탕의 풍악놀이가
아픈 상처를 다스리는
씻김굿으로 바뀔 테지

그날이 오거든
아이야 소를 몰고
봄의 교향악이 들리는
천라의 언덕으로 달려가거라

푸른 강 물결이
금색으로 번쩍이는 강변에서
우리 조국의
찬란한 역사를 바라보려마.

뱃사공

저녁노을 붉게 타는
어둑한 강기슭에서
귀뚜라미 쉼게 울어도
우리는 長江을 건너야 한다.

밤바람 드세게 불어
출렁이는 물결이
뱃전을 때릴지라도
뱃사공을 따라 長江을 건너야 한다.

긴 백사장을 걸어와
長江을 건너야 하는 지금
드센 물줄기를 타고 넘어서
희망을 찾아 떠나야 할 우리들

우리 같이 떠나는 길손들은
어두운 저녁 강변에서
저만치 매달린 빈 배를 쳐다보며
뱃사공이 오기만을 기다리노니……

우리의 長者, 뱃사공……
비록 지쳤을지라도
우리 길손들을 위해서
그는 다시금 뱃머리에 서 있어야 한다.

배에 오른 우리들은
힘껏 노젓는 長者의 뒷모습에서
안도와 신뢰감으로
희망에 넘치는 彼岸의 햇불을 본다.

나의 기원

무심한 듯 푸르른
드넓은 창공 어디메에
실개천 흐르듯
나즈막한 소리 들려
작디작은 소망 하나
들꽃처럼 피어나길
나는 조용히 기원합니다

너무 큰 야망이야
크게 잃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이제라도
이 세상 살아갈
죄그만 지혜하나
작디작은 실마리 한 가닥일지언정
나의 손에 주어지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가을밤의 코스모스

칠혹같은 지난 밤에도
밤새워
키 큰 코스모스들 피어 있네
싸늘한 밤바람에
선잠 뒤척이며
서로들 다독다독
순백의 꿈들일랑
은하 강물에 흘러 보냈을까

한기가 돌듯한
서늘한 새벽 길섶에
엷어져 가는 어둠속으로
하-얀 코스모스 다가오네
난 그만 어찌지 못해
내 따듯한 두 손으로 감싸본다
샛별이 유난히도 미소짓는 아침에……

김영박

조선대 국문과 졸업,
1996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지리산이 전
서체로 일어서다』, 현재
구례고등학교 재직

시

●

바람에 물어오는 소리
진달래 평원
천왕봉이 철쭉꽃으로
피어 있다
산이 머물고 있는 행간
바위들이 비구니의 독경
소리를 흉내내다
추억으로 여무는 산딸기
보이지 않는 길이 흰하다
대야산
대둔산으로 숨는다
겨울 추월산

바람에 물어오는 소리

—山行記 1

마음에 절 한 채 짓는다

불상도

스님도

모두 떠난 절

검은 이끼 파릇한 돌들만

바람에 물어오는

시간 속에 든다

동리산의 동녘

안개로 깨어나는데

내 몸을 지나간 사람들이

가만가만

물소리로 흐른다

꿈으로 다시 피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누군가의 가슴을

기웃거리는 길

진달래 평원

—山行記 2

누가 산등성이를 타고 하늘에 오르려다
진달래꽃으로 피었을까

이끼 파랗게 낀 자갈밭 사이사이에
연분홍 잎으로 번진 핏자국이
내 몸에 불을 밝힌다

백지만 남은 가슴속에
백운산이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노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
가슴을 살살이 뒤진다

철새떼의 날개에 매달려
하늘을 떠돌던 이야기
바람이 되어 내려오는데

천왕봉이 철쭉꽃으로 피어 있다

—山行記 3

눈만 크게 뜨고
사진기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철컹철컹
내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해가 중천에
사로잡혔다
구름 때문이었을까
바람 때문이었을까
하나의 철쭉으로 남은
지리산 천왕봉이
하산을 서두를 뿐

통천문을 내려오고
제석봉에 이르러도
내 발에 채워 놓은
쇠사슬을 풀지 않았다

산이 머물고 있는 행간

—山行記 4

최동호 시인의 가슴속에 빠진다
병아리떼 옹기종기 모여 노는
봄별의 가장자리에
바다보다 큰 눈이 머문다
단어의 틈을 비집고
행간에 머물고 있는 산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내 몸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흙이 되는 바위 속에
뿌리를 묻은 솔 나무*가
배꼽까지 올라온 장군 바위에 걸터앉아
가슴을 축축히 적신다

세상 밖으로 가는 길이
벼랑을 붙잡고 따라오는데

* 최동호의 시 「아이와 산을 오른다」 한절

바위들이 비구니의 독경 소리를 흉내내다
—山行記 5

물소리가 코를 꿰고 있는 산을 깨운다
마음을 부여잡고
안으로 안으로 흐른다
산 그림자로 채워진
내 몸에 날개가 돋기 시작한다
몇 백 년 삭아 내린 솔향으로
바위들이 서로
머리를 치박으며
비구니의 독경 소리를 흉내내는
대원사 계곡
오래 숨기고 온
이야기의 속살처럼
마을로 가는 길을 지운다
여름 잠에서 방금 깬 하늘이 내려오다
목욕을 하기 위해 눈을 두리번거리는 계곡

추억으로 여무는 산딸기

—山行記 6

허공을 떠돌던 태백산맥이 줄줄이 따라 온다

매미소리

내 몸에 붙어

허물어진 유년을 세우는

조계산 능선

짐승들이 몸을 부비며

놀다간 자리 곁에서

노란 나리꽃이

내 눈 속에 물을 들인다

평 새끼 한 마리

풀 속으로

재빠르게 숨는데

태백산맥은 줄거리를 잃고

도롱뇽 새끼를 따라

다람쥐 새끼를 따라

숨가쁘게 움직인다

산딸기 몇 알

추억으로 여물기 위해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길이 환하다

—山行記 7

나비가 된, 어린 시절의 일기처럼
사람의 발자국이 지워진
길을 따라온다
나무꾼이 짐을 지고 내려오던 길
가파른 절벽이
가슴 속에
층층이 쌓아올린 담을 허물고
물소리를 모으는
반달소
용소
마한의 그림자가 서성이는 달궁이
멀리서 걷고 있는데
푸른 빛을 입은 나무들이
내 몸에 들어와
목욕을 한다
풀벌레처럼 언어의 돌탑을 무너뜨릴 때

대야산

— 山行記 8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 속에서
잠자는 대야산을 깨운다
꾸불꾸불 산길을 돌아온 하늘이
내 몸 속에 들어와 알을 낳는다
고주몽의 알
혁거세의 알
점점 어둠을 걷어내며
깨끗이 지워 놓은
언어를 찾아 움직인다
몇 십 년,
내 몸 어딘가에 숨어 있던 빛이
가을 산으로 일어선다
아직도, 전설이
거친 숨을 몰아 쉬는 폭포
슬금슬금 골짜기를 내려오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단풍
하늘 밖으로 떠난 구름 조각들은
좀처럼 돌아올 것 같지 않는데,

산맥을 끌고 올라온
봉우리 끝에 서서
멀리 달아나는 할매 통시 바위를 잡는다

대둔산으로 숨는다

—山行記 9

대둔산으로 뻗어 있는 길은
도시의
정반대 편에서
걸어 나온다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깊게 숨어 있는 시간들을
하나 둘 끄집어내
만주보다 더 큰 평야를
들어 앉힌다
깊은 산허리를 빠져나와
대륙으로 발을 틀어놓은 길
언젠가 내 손을 떠난 방패연 하나
절벽 위 소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마음 속에 묻힌
하늘을 끌어낸다
숨털처럼 흰 구름이 이는 유년을 안고
맨살을 부비는 갈대숲 속으로
바람이 긴 꼬리를 흔들며 흐느끼는 산길

겨울 추월산

—山行記 10

해가 절벽을 타고 기어오르다
뒤를 돌아다 본다
걸어온 길이
붉게 타며
흑점이 되어 몸부림친다
마지막 힘을 모아 놓은 눈 속에
하늘에서 끌어내린
폭포가 걸리고
소나무 분재에 걸터앉은 암자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 들어온다
석순으로 일제히 일어난 빙벽이
함성을 일으키며
한 폭의 무지개를 거는
겨울 추월산



김정숙

《민족과 지역》 및 《자유
문학》으로 등단, 현재 전
남전문대학 사무처 근무

시

•

적막한 마을
겨울아침
먼길
독신의 방
집
당산나무 그들의 풍경 하
나
어떤 일

적막한 가을

내 지나온 중심을 깨뜨리는
빈 마을의 잠은 깊다
달 그늘에 잠긴 탕자꽃 울타리는
그나마 별뿔뿔 하나에 등을 기대고
세상의 뜻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루살이들은 고요속에서 대책없이
처마 燈 아래 죽음을 부른다
상처입은 날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유순한 안개가 휘장처럼 마을을 덮어 오고
요령소리 저음으로 깔려오는 것 같다

겨울 아침

수탉이 해를 치는 아침이다
밤새 내린 눈부신 白雪 위에
강아지 몇 놈 벌써 깨어 뒤엉켰다
거기 어미 개 무연한 표정으로 서 있고
쌀뭇박 들고 부엌문 드시는 노모와
천지 사방이 눈에 드는 화장실에 앉아
나는 풍욕과 배설을 시작하는

또 하루
무엇인가 뜨거운 것 몽클해지면서 참다워지는
그런 아침

먼 길

혼자서 간다 기꺼이 더딘 발걸음으로 행려병자처럼 간다 무언가 품지 않으면 다시는 일구지 못할 황무지의 묵정밭 한 뼨기처럼 그가 반겨줄리 만무한 그 먼 길을 헤매인다 생각이 너무 많아 한쪽 가슴만으론 걷어 잡을 수 없는 생각들을 뿌리치기도 바쁘다 사실 그의 위태로운 침묵이 자신 없기도 해서 나의 예정에 없는 방문이 곡예만 같다 따지고 보면 내 집착이 지나친 것이라는 걸 안다 자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구차스러운 변명인가 사실 그때 그 불빛 속에서 슬기운에 목놓아 울 적에 결정적으로 그가 따라 울지만 않았어도 눈부신 손수건으로 내 더러운 콧물을 닦아주지만 않았어도 그러나 또 그게 전부였다 할지라도 그가 취했다면 차라리 포기라도 하지 추억이란 때로 어처구니 없이 쓰라린다 지금 가는 길에 코가 석자나 빠져서 고개가 무겁다 말하자면 그에게 닿기가 너무 힘든 이유다

독신의 방

나의 어중간한 빈 시간은
늘 수척한 엄마의 시선으로 몰린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뒤집어 보고 싶은 내 앞날에 대해
미련 많은 뒤통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비장의 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뒤통수가 무얼 알겠는가
나의 시선을 되받은 엄마의 눈동자가
어느날 갑자기 백내장을 앓는다
온전히 보이지 않는 엄마의 눈총은 의미가 없지만
드디어 육안으로 바라보는 시선앞에 깃들어
내 마음은 벗어나지 못한다
유혹이 아닌 불혹의 시절에 잠시 어리둥절하다
끝내 아무도 날 그리워 해주지 않는
추억뿐인 사랑으로
늦어도 한참을 늦게 찾아 나서는
나의 순정은 이제야말로 자유로운 술래잡이인가

집

아무렇게나 있어도 좋았다
기어이 비집고 들어오는
떨칠레야 떨칠 수 없는
세상 모든 잡사까지
생각속의 데면데면한 모습들까지
나의 집에서는 가히 옹골졌다
가슴 침침한 어둠일 때도
헛군데로 인도하지 않고
신통력 있는 점술가처럼
나를 당기는 그 울 안
암담한 벽이었다가
위안의 울이었다가
드러난 어깨 불빛으로 어루어 주는 아늑함
때론 가위 눌린 꿈에 허덕일 때도
어쩌면 그토록 따스게 모든 것 다스려 줄 수 있었는가
이런 나의 집 어여뻐서
귀뚜라미 보일러 한 대로
큰 마음 써 주었더니
그 뜨끈뜨끈한 것 넘쳐 흘러
이불 걷어 차고도
널브러질 수 있는 나의 집

당산나무 그들의 풍경 하나

이제는 어떤 것에도 그리 곤궁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똑같은 말년에 홀로 되신 할머니들
어쩐 일로 한 골목에 다섯 집이 줄줄이 꼬부랑 할머니다
지게 작대기를 주렁삼아 꼬부랑꼬부랑
귀도 멀고 눈도 멀어 안녕을 여쭙어도 뉘시여!
습관화된 쓸쓸한 그늘만이 질다
근력도 없고 식욕도 없어 비는 초로의 할머니들
벽수보다 더한 노색의 주름살로
마을 어귀에서 마냥 서성댄다
당산나무 이파리는 한사코 바람을 일으켜서
그 청정한 고독 씻기어 준다
골목길 하나 길게 편히 누웠지만
누구 남정네 하나 구부정이래도 밝아가는 이 없고.

어떤 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더니 다른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별것 같이 구는 거예요
무언가 까닭도 없이 내 氣가 꺾이었어요
사소한 일에 공연히 뒤흔겨버리고 싶었어요
жал아 몽갓다고 해서 당신의 위상이 곧추선다면
그래서 당신이 더욱 빛난다면
내 순정한 목숨 던져주리요
이해되지 않는 위험천만의 언행에
내 맨 얼굴이 내 생머리가 내 수수함이
마땅한 이유도 없이
견디기 힘든 수모가 될 줄은 몰랐어요
주민등록증 말고
부르조아 딱지 특허내야 하는 혼돈의 세상이에요



김진문

《문학공간》으로 등단. 시
집으로 『빈 세상에서 아
침저녁으로 나는 운다』

시

●

병동 아리랑
모래알
제기놀이
조선 속
조선의 호박

병동 아리랑

—정임이 누나 수간호사

정임이 누나 수간호사
반달모양 치뜬 두 눈 속에는
대보름밤 잡곡밥 같이 끈끈하게 찰지어라
지난 나이에 도 버릴 것 없는 간간한 모습은
늦서리 맞은 단감마냥 단맛났지
오늘은 꽃땀기 늘어뜨린 중환자실
평안도댁 머리 손질하러 간다.
검고 하얀 가르마길
반듯하게 가야 할 길이 좋더란다
당찬 정임이 누나 수간호사
늦은 까치밥으로 남겨 두었을까
오늘도 평안도댁 앙상한 손아귀에
참빛하나 슬며시 쥐어주고 나오는
정임이 누나 수간호사
거기 그렇게
꼭 그렇게 새롭 까치밥으로 남아 있었으면.

모래알

젖이겨진 모습으로 나는 이 계절 어깨 위 상처가 깡이라도 박히기를 바랐다.

어깨 위 대일파스 시원함과 쓰라림은 단단한 철근 쪼가리와 시멘트 가루가

지난 봄부터 내 어깨 위 집을 한 채 지은 까닭이다.

이젠. 긴 겨울 휴식이라 작업복 속 모래들이 잠자는 동안 싹이라도 틈을까.

생각해 보면 거대한 모래더미가 질통 속에 한짐한짐 사라져 가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한 계절 눈속에 모두 묻히려 든다.

숨어버린 것 만큼 향문 속 짝 찬 돌맹이들 자갈자갈 구른다.

모래들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모래알 되기를 두려워 하는 걸까.

모래들은 지난 돌맹이 되었던 그리움들을 안고 쌓여 뭉쳐지려는 것일까.

깊숙한 신발 깔창 속 세제라도 씻어낼 수 없는 그 무엇. 언 땅에 삽 자루라도 하나 꽂아 볼까.

시멘트 독이 오른 상처에 마른버즘 텅 빈 들판처럼 허영게 서리가 엮고 보니,

땅은 얼어 갈 곳 없는 마음들.

아무리 퍼 담아도 한 삽 외는 다 흘러버린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변기통 찬기가 엉덩이 살 끝에 아릿하게 전해온다.

요즘은 아내의 신선한 녹즙 한 잔이 그립다.
내 어눌한 삶,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부서져 모래알 되어가는 것 마저도 즐거워해야지.
욕심많게 뭉쳐 쌓였던 항문 속 변비가 모래가루로 흘러내리기를.

제기놀이

아이야
너 어디다 발 딛고
제기 차는 놀이 할래
이 땅에서
너 자세 바로 하고
제기 찰래
너의 마음 아름답게 바로 하고
너 누구와 제기 차는 놀이
함께 할래
너의 또래들이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
초가지붕에 올려진
제기 주워 올래
너 어디 고른 땅에서
제기 차는 놀이 할래
너의 또래들이 빙 둘러
발 사이로 던져진 제기 어디로 찰래
이 땅에서
흰 고무신 신고
너 어디로 제기 높이 띄울래

한 개 차고 두 개 차고 세 개 차고
네 개 차다가
너의 아름다운 꿈 어디 띄울래
발 사이로 던져준 제기 어디로 찰래
발 사이로 속속 빠지는 제기를.

조선 쑥

뿌리 짙긴 생명을 봅니다.
반도의 허리를 휘어감는 온아함이며
상처 투성인 민족 지혈 작용을 하라
자궁 출혈에 생생한 옥동자가 태어납니다.
연한 잎은 향기로운 자월도 향기
그윽한 금강산 즐기
호혈과 응혈의 쑥내를 풍기며
조선 것 조선인 지혜를 본다.
새 봄 터 파란 새순
아, 생명입니다.
턱 막힌 가슴들 후련하게 트일
아침 밥상에 오를 조선의 쑥국이며
연한 향기로 코끝에 스치면
키가 커가는 따스함을 봅니다.
가파른 언덕에서도 담장 밑에서도
솟을 조선의 쑥이며
바구니 옆에 낀 조선의 처녀들 봅니다.
턱 막힐 가슴들 후련하게 트일
조선의 쑥국이며
신아침 밥상에 오를 조선의
쑥국이며.

조선의 호박

긴 여름을 피약별에서 버티고
밤이면 삼별초 은은한 별빛 속
지켜주는 이 있었구나
도심 속 후미진 곳
어머니 새콤한 땀내로 자라고
둥굴지도 비틀지도 않고
누런 빛으로 가을 자리에 우뚝 선
조선의 초가삼간을 오르내리며
밟혀도 밟혀도 일어서는 조선의 힘 뺏어서 뺏어서
중국연변 조선족 살림집 울타리를 이루고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쑥대지붕 위에서도
조선의 조선 것 굵고 토실하게
내어 놓을 것이다.
좌별초 우별초 별빛으로 쏟아지는
새벽녘
답을 넘는 너는
가장 조선을 깨우는 신새벽
조선 토종닭 해치는 소리 들릴 것이다.
누런빛 단단한 자세로 초가지붕 위
조선의 억센 이름으로.



서종규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5년 《한글문학》
으로 등단, 시집으로 『매
를 때리고 나서』 『잘려진
가로수에는 껌꼬리가 살
까』, 현재 광주경신여자중
학교 재직

시

●

- 옥과장터 · 1
- 옥과장터 · 2
- 옥과장터 · 3
- 옥과장터 · 4
- 옥과장터 · 5
- 옥과장터 · 6
- 옥과장터 · 7

옥과장터·1

골라 골라 싼거리 싸구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입구부터 시끌병딩하여
해질녘까지 왁자지껄하던 장거리를
까까머리 붕어빵 하나 물고
해 지는 줄 모르고 구경하던 장터였다.

이칠곡성 삼팔석곡 사구옥과
기억을 더듬으며 흑시나 하고
조마조마 찾아든 사구옥과장은
입구좌관에 너저분한 인조꽃
시들시들 주인을 기다리고
돌아가지 않는 붕어빵 기계 위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붕어빵 몇 개
군데군데 도리명석에 얹전한 색시같이
즐고 있는 참깨 두 뒷박 콩 반 말
개구리 지네 약장수 녹음기 시들
검정고무신에 먼지 가득한 신발가게
쇠고기 돼지고기 개다리 덜렁한 푸줏간

아예 문을 열지도 않은 가게들도 많고
장은 섰으나 점심도 되기 전
파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없이
서둘러 문을 내리는 사람 하나 둘
함석지붕에 바람일어 들척거리고
선술집 술청 날파리도 졸고 있다.
어리전 똥냄새만 헛소리 따라 퍼지는데
그래도 오일장은 산사람 명줄같다.

옥과장터·2

—국밥집 주모

꼬불꼬불 꼬부라진 꼬부랑길 타고 돌면
꼬불꼬불 꼬부라진 순대 익는 소리
하얗게 피어올라 왁자지껄 떠드는데
빙그레 익어버린 돼지코 발라내고
포근포근 포근한 간 허파 쓱삭
아까워라 내새끼 새끼보 떨어놓고
쭈글쭈글 쭈그러진 내장 삭삭삭
냄새를 제거하기 육쪽마늘 최고
남새에서 뽑아온 쪽과 입맛 돋우고
미끌미끌 참기름 두어 방울 딱딱
꼬추가루 확 뿌리어 얼얼한 국물
오일만에 춤을 추는 주모의 칼솜씨
침넘어 가는 냄새 발딱 발을 붙잡고
고봉으로 얹은 고기에 푸짐하게 한 사발
오일만에 찾아든 동그란 얼굴들
안면은 없어도 왁자지껄 이웃사촌
막걸리 한 사발에 저물어가는 이야기들
빠근한 허리 세워 기우는 해 바라보며

파장을 정리하는 주모의 주름진 눈이 빨는 말
그래도 장터에서 가장 바쁜 집이 우리 집이여
이 집이 조용하면 이 장은 영영 문닫는 거여

옥과장터·3

—우시장

위메 세상에 말뚝만 있습니다.
일년농사 실한 소 잡는다고
새벽밥 덜렁덜렁 맨발로 내닫던
움메소리 고갯마루까지 들렸는디

글쎄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요란한 굉경소리 뒷발 벅벅 끊어대고
입가에 거품날리며 울어대는 황소는
발같이 논같이 쟁기질에 질이라고
코뚜레 치켜올려 이빨 보고 금 매겼는디

거간 소리만 바람 타고 들립디다.
황소 한 마리에 달라붙던 거간꾼들
한 마리 거간이면 순대국이 푸짐하고
목청도 크게크게 거간꾼 신이 낫제
궁둥이 모양붓썩 춘향이 뺨치제

아직도 냄새는 지독합니다.
빈대떡 떨어지듯 차곡차곡 떨어지던 소똥

주차장에 억눌린 비명도 바람이 잡아갔는데
냄새는 아직도 땅밑에 살아남아
다시 들려올 움메소리 귀기울이며 몸부림

옥과장터·4

—검정고무신

머리맡에 모셔 놓고 날새기만 기다리다
탱탱한 고의춤 억지로 움켜쥐고
하이얀 굽벙이 무서운 꿈에 뒤척거리던
자랑스런 설날 아침은
끈도 없이 신기만 하면 최고인
타이어표 검정고무신이 눈부셨다.

자운영꽃밭에 과문힌 하루
호박벌 잡이 기계는 단연 검정고무신
가까이 다가가 검정고무신으로 낚아채어
빙빙 돌리다가 땅바닥에 내리꽂아
자랑스레 치켜들던 호박벌 사냥

까마귀 떼 맴돌기 시작하면
진흙에 빠진 발 고무신 벗겨져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까마귀 쫓아 내닫고
사립문 부여잡고 엄마 눈치보다
찢끔찢끔 오줌 싸던 무서운 부엉이 소리

양철 지붕 덜썩이는 장터 신발가게엔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빼기는데
귀퉁이 기둥 밑엔 아직도
가지런히 진열된 검정고무신이
까까머리 악동들의 합성을 그리며
먼지를 이불삼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옥과장터·5

—땀장이

웃기제, 내 나이 몇인데
검버섯 얼굴 귀밑으로 흐르는
실것같은 머리 감추려 신세대 모자 눌러 쓰고
이자리에 앉았는지 나도 모르겠썬
누가 찾아나 주나 장구석 한귀통이 쪼그리고 앉아
종일 돌리고 돌리고 작은 손풀무 돌리고

한 때는 나도 날렸제
땀 통 짙어지고 동네어구에 들어서면
졸망졸망 망아지들 시끌병딩 뒤따르고
부잣집 대문앞에 멍석깔고 자리잡으면
구멍난 헌술 뚫어진 양동이 새는 주둥이
떨어진 환고무신 달아진 검정고무신

씻 씻 소리 따라 시퍼런 풀무불
이글이글 녹아 흐르는 씻물 끓고
오목오목 말아붙인 금형 모래
한순갈 담아내면 앓 뜨거라 조심
뚫어진 술엉덩이 뿌지지 지져대고

흑흑 연기 불어 다 때웠네 새것 되었어

기다리는 내가 바보여
요즘 세상에 누가 땀질하여 쓰겼써
요즈음은 새것도 다 못쓰고
더 좋은 것이라 버리는 세상인디
장구석 한구텅이에 이 청승피운다고
마누라 구시랑구시랑거리지만
구시랑거리는 주당이는 못때우고
오늘도 하릴없이 돌리고 돌리고
이글이글 끓어 오르는 쇳물로
뚝어진 내맘 또 때우고 때우는 거여

옥과장터·6

—영생꽃집

가로길 모퉁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불삽 운삽 공포 명정
삼색저사 상두복색
용저오채 용구유소
필력리는 진용(振容)
하얀 꽃 꽃상여
구슬픈 상여소리
흐느끼는 발걸음
귀 기울이며
먼지로 뿌연
출입문 사이로
지나가는 영구차
물끄러미 바라보며
죽을 노인마저
떠나버린 농촌
그래도 꽃상여들은
아무말 하지 않고
한세상 건너갈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옥과장터·7

—꿈*

형은 참으로 신기한 재주가 있었어
꼬꼬닥거리는 암탉 뒷꿈무니
떨어진 헌 고무신 벗어 놓은 엄마머리
번개같은 숨씨 어디에서 나오는지
찢꺅대는 옛장수 가위소리에
가장 먼저 줄을 서는 우리들의 대장

형이 우리를 가장 긴장시키는 것은
오 원짜리 홍길동표 풍선꿈
작작 씹어 똑똑 터뜨리고
북북 불어내어 개구리 불통기
입어 문 풍선 코 위에 붙이고
뒤란 밤나무에 초승달 걸리면
사진가구 뒷판에 남 몰래 붙여 놓고

꼭발딩고 쳐다보고 다시 한 번 못내못내
그래도 대장이라고 눈감아 준 아량에
꿈 떼어 입에 넣고 작작 씹어 똑똑
북북 불어내어 개구리 불통기

누나 크레용 노랑 빨강 골라내어
끔속에 집어넣고 오물오물 씹어내어
노랑풍선 빨강끔 한 눈 감고 불어 내고
빨개진 헛바닥 거울 보며 자랑하다
손톱만큼 남아 있는 닳새밤 지나면
엄마 머리카락 숨겨놓은 곳
형한테 알려주고

* '끔'은 '깎'의 속어

송미수

1994년 〈무등일보〉 신춘
문예로 등단, 여성신문 여
성문학상 수상, 현재 창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
사로 일함

시

●

송광사 겨울 편지

귀향

추석

밤 눈

입춘

송광사 겨울 편지

보아라, 버린다고 다 칼이 아니란다
자욱한 이내에 획을 치던 조계산
산 하나 품고 싶어 풀무질을 하다가
저 홀로 달아올라 신음을 뱉던
무쇠덩어리. 내 모지라진 붓을 건네 받아
담담하게 수묵화로 가부좌를 틀더구나
주암호는 푸른 명주필을 펼치고
저못하게 푸리는 두루마리 따라
만리 밖으로 물러서는 물길을 건너며
서른해 동안 흘러버린 머리카락 건져 잇다보니
해 떨어진 사방천지간에 아득하게 훑날리던 눈발
다 버리라 내려놓으라
물 밑에 묻으라
자늑자늑 잿아들던 함박눈송이
손등으로 쓱 훑치면 한방울 소금기로나 배어날 것들
다 털어내기 가볍다 가볍다
어두운 산길을 돌아드는 회중전등에
황급히 몸을 숨기는 떡갈나무 정령들
검은 망또 자락 끌며
하늘로 오르는 돌계단을 닦고 있었나니

이제사 청각도 트이는가
줄을 서서 풍경을 흔드는 활엽수들의 말씀을
베고 누워 참으로 오랜만에 등짐을 부린다

귀향

저 길만 돌아들면
안골이다. 비둘기호는 날개가 젖고

딸만 내리 다섯을 떨군 어머니의
차마 마시지 못하고
옷목에다 밀어둔 미역국
다 식어 죽보 밖에 밀려나
항렬을 앞세우며 사랑에 모이기보다는
댓돌 위에 신발이 몇켤레라고
중문을 지나 정챇간에 외쳐대었던
녹슨 기억의 문고리가 덜컹댄다
일순 휘청 한다

공공 언 서울 하늘을 재봉틀로 누벼서라도
큰오라비만은 학사모를 씌워야 했던
누이들, 산다랭이 논둑길에서
메뚜기를 쫓는 꿈이라도 꾸는지
차창마다 환하게 떠오르는 보름달
하나씩 안고 돌아오고 있다
자고나면 키가 크는 콘크리트 숲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은
꿈길에서라도 꼭 다시 와
살다가는 곳으로

추석

오매 내 강아지 가우라고 오는구나
가마솥 뚜껑에 올벼를 짜다가
어머니는 반겨나와
빌딩군락에 주눅 든 눈빛을 씻어 주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라던가
등두렸한 열나홀 달빛 당겨 덮은
곤한 노독이 녹아드는 평상을
요람인 듯 흔드는 별레소리

모시 순을 뜯어다
형수님은 송편을 예쁘게만 빚었을까
몇년 후면 문을 닫아야한다는
분교에 적은 둔
조카딸의 불우물
고와라 차례를 모시고 치어다 본
대추남기에 열려 발긋발긋 익어가나니
울 같은 가뭄에도 참 맑게 물드나니

하마 선산 옆자락 밤숲에는 아람이 벌어

밤눈

잘근잘근 밟아라 어머니는 오늘 등허리가
아프시란다 이 나라 꿇어진 허리에도 만주
별판 아득히 달리던 채찍 소리도 눈에 묻혀
떠도는 군화소리만이 머리말에 어지럽다
산 깊은 마을에는 초저녁부터 어둠에 눈이
묻어내리고 마른 울퉁늅쿨에도 눈이 내리고
이따금 킁킁 짓는 삼살개 소리만
봉당에 쌓인 눈을 쓸어 어디론가
급히 굴러가고, 군불 너럭히 넣은 아랫목은 설설 끓는데
환한 대낮에는 그 눈초리 매서워 못 오시고
낮은 기침으로 뒷방문을 흔드는 내서방
황토흙 무겁게 앉은 신발끈을 푸는
아야 니 아버지다 문고리를 따라
이 늙은 에미는 안 보고도 다 안다
기다림으로 허영게 밝은 어머니의 머리칼이
왈각 물려든 눈발에 묻힌다
허공을 휘젓다가 힘 없이 떨어진
폭 꺼진 눈꺼풀 위에 길을 잃은
눈송이 하나 이 밤에 따뜻히 녹는가
무덤없는 혼 한 위 편히 쉬는가

한솔이는 성묘길에서
주머니 불룩하게 채우겠다
풍년도 두둑히 담아 오겠다.

입춘

더불어 가야 하리
너무 소원하였던 우리 사이
잠겨 버린 대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청태 긴 부싷물을 비벼
햇불 높이 치켜들고
세상 모를 단잠에 빠진
내 반신 흔들어 깨워
목 메인 입춘대길도 써 붙여야지

들어야 하리, 그 땅에 가서
얼어붙은 산천
감격으로 적서 달리는
강 밑바닥에 드리누워
버들강아지 동상 든 피하에도
다시 돌아 흐를
그 암울한 설한 이겨낸
새 앞눈들의 벽찬 화음을

불러야 하리, 기어이 불러야 하리

지혈의 압박붕대를 풀어 던지고
압록과 두만의 웅웅한 노랫말을
한라와 백두의 장엄한 합창을.



신현영

《문예연구》로 등단

시

●

세월 속에서
하루살이
부부 등대
역
나그네

세월 속에서

산동에 오른
역새
바람 타고
세월을 쫓고 있다.

삭풍의 하얀 눈
누구 위한 마음일까.

하루살이

아무리 날개를 쳐도
소리가 와 닿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살아도
허공은 너무나 넓구나
하루가 너무나 길구나

부부 등대

뭇 내려라
땀 내려라
하루가 저물어 가듯
어느 화폭에 타는 노을을 이고
살아 숨쉬는 서망포구

숫대에 걸린
옛이야기
바람이 흔들다 가고

갯내음
이끼에 쌓여 쉼 넘어서면
파도는 긴 자락으로
세월을 휘감고 돌아

파란 등대
하얀 등대
부부되어 밤을 산다.

역

내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 역이 된다.

역에 내리면
산이 따라 내리고
산이 내리면
역원의
기다리는 꿈이 내린다.

새싹은 돌아
우리의 노래로 떠나고
낙엽이 저서
나의 노래로 내리면

기적은
머얼리
산 모퉁이를 돈다.
철로옆에는
멀어져 간 세월이 있고
언제나
가장 나아종 지닌 동심이 돌아와 있다.

나그네

구름 머무는
가마골 始源

물방울마다
산새 울음

차마 떠나지 못해
용소에 머물면

남으로 흐르는
이별은
몇 리가 전해질까.

양은찬

전남대학교 사대 음악교
육과 졸업, 《문학공간》으
로 등단

시

●

어린 날의 아버지
지하상가
사과
목화밭의 추억
발톱깎기
또 한 바퀴 나이테를
두르고
바가지를 굽고 나서
그네타기

어린 날의 아버지

파자마와 흰셔츠의 어린 날의 아버지는
베토벤 바하보다도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할아버지로부터
가보로 물려받은 바이올린을
안방 천장에다 고무줄로 매달아놓고
술가지 타는 아침마다 바이올린을 켜는
매운 아침 연기 속의 음악가였습니다

곤색 모직 양복의 학교 선생님 아버지는
모짜르트 슈베르트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새암가 석류나무 보석같은 눈을 가진
엄마의 잔소리가 보리쌀 가는 소리 같아도

늦은 저녁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모레스크 웃음 지으며 냉수 사발 들이키는
바그너 베를리오즈보다도 멋진 낭만파였습니다

단짝 친구 연이가 나와 싸우다가
내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을 때

홀로 선 골목길에서 내가 만난 아버지는
와이셔츠 단추 걸그적거리는 가슴에 나를 꼭 껴안고
모직 양복 속에 스민 아버지의 냄새를 새겨주었습니다

홍난파의 동요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던
어린 날의 위로는 지금도
슬플 때마다
예수님 냄새로 다가옵니다.

지하상가

내가 하늘을 보기 위하여
이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내 영혼을 팔아도 다 사지 못할
화려한 상품들이 속살을 드러낸 채
주인이 되어달라고 불빛으로 유혹한다

나의 하늘을 보기 위하여
이 긴 터널이 지루하지 않다

땅 위로 다닐려면 구두가 필요하지
도시락 쌀려면 보온 물통이 필요하지

핏속을 지나야 할 신선한 공기가
쇼윈도에 부딪쳐서 숨이 죽었다

이 좁은 터널 속에 그 많은 상품들이
불길 같은 손목으로 날 잡아 끌어내리고

주머니 속 동전같이 가난한 내 영혼은

수많은 터널을 뚫고 내달려야 한다

나의 하늘을 숨쉬기 위하여

유혹의 긴 터널을 빈 지갑으로 지나간다

사과

사과를 주시면 껍질 채로 먹겠어요
빨간 웃음 소리 이빨로 가르며 지나갈 때
실핏줄마다 사각사각 날개 돌아나는 소리가 들려요

사과를 주시면 송치까지 먹겠어요
까만 씨알 들여다보면
초록 햇살 출렁거리는 그 나라
과수원 사과밭이 보여요

아름다운 이야기들 생글거리며 내려와 박혀
거칠어진 손 어루만질 때 속살대는 물소리
사과같은 승리를 맞이하는 박수 소리가 들려요

빨간 피 흐르다 멈춰 상처 아문 손바닥의……

목화밭의 추억

하얀 강물 위에서 잠자리가 미끄럼 타는 밀밭을 지나
숨구름이 바람에 흔들리던 그 언덕을 걸어보았니?

소녀의 앞가슴같은 봉오리를 뚫고 구름이 나무에서 피어나
뽕뽕 뽕뽕 방울진 열매
뽕고도 달콤한 다래를 먹어보았니?

초록 잎사귀 넘실대는 바다 위에서 쌀 뜨물빛 꿈밭에
밀물로 피어나던
하얀 거품덩어리를 만져보았니?

파란 하늘에 이불솜 몽실몽실 펴 놓으실 때
앞치마에 따모은 솜사탕이 무덤같이 쌓여
수숫대 분질러 주시며 단물 빨아 먹으라시던 할머니

숨은 별처럼 아픈 그리움 너도 보았니?

발톱깎기

내 몸의 끝을 깎아낸다
스타카토로 툭툭 튕겨나가는 나의 분신은
저만치 나뿔굴어도 아프지 않다
도려내어도 아프지 않는 살은
벌써부터 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발톱이 가죽 구두를 뚫고 앞장 서 나가려 할 때
발가락의 여린 살이 비명을 질러 나를 부른다
온갖 기억들에 밀려나
충직하기만 하던 발을 부여안고
나는
내 몸이 너무 길어나 버렸음을 반성한다
가슴에 푸른 멍으로 앉아있는 그리움은
혈관을 타고 녹아 흐르다가
발가락 끝에 와서 응고되어 버린
나의 분신일까
걸음걸음마다 가시를 깔아 나를 절룩거리게 하는
그리움은
저만치 튕겨나가도 슬프지 않은
나 자신일까

아득한 낭떠러지와 구름에 가려진 산봉우리의
한 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아
쓸데없이 커버린 나의 自我를 잘라낸다

또 한 바퀴 나이테를 두르고

너무 멀어서 떠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으면
손에 밧줄을 들고
소리없이 다가와
내 모가지 또 한 바퀴 감아
뉘아챤 준비를 하시는 분

내 발은
낮선 땅에
너무 깊이 처박혀 버렸어요
배설되지 못하고
내가 되어버린
살이 너무 무거워요

팔 다리 꺾이지 않게
그리운 나라 데려가려면
얼마나 더 긴 밧줄이 있어야 하나요
양들의 힘줄로 꼬아 늘인
싱싱한 결박 위하여
얼마나 더 긴 강물이 피로 흘러야 하나요.

바가지를 긁고 나서

전화료 독촉장과 승용차 세일맨의 명함이
들어있는 와이셔츠
가슴주머니를 비우고
따뜻한 물에 당신을 담귀요
남자의 모가지에는 사슬이 묶여 있나봐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스레트 지붕의 그림자가
정오의 햇살에 밀려나기 전
젖은 자존심을 널어드릴게요
눈부신 것들이
새하얀 꿈을 누렇게
덮어버리거든요 나쁜 왕비를 꿈꾸던
손바닥 합장하여
당신의 목을 어루만져요
비밀 때마다
겨울새 울음소리가 나네요
도량물 속에 날개를 퍼드덕거리네요
참았던 욕설들을
이 손바닥에 빨아버려요
비누방울 속에 무지개가 보여요

사랑사랑내사랑어화둥둥내사랑……
잃어버린 노래의 물살을 흔들어
축 쳐진 팔뚝을 붙들어 드릴까요
손톱 속에 땀줄이 사라졌네요
사슬을 벗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당신이 보여요
햇살과 그림자가 어깨동무한
지구를 돌리네요.

그네타기

하늘 보자기에 싸매여
획 던져저도 좋을
살덩어리
내 무게를 투덜대며
깍깍거리는 쇠사슬에서
망치냄새가 난다

나를 벗은 그림자
이제야 흡가분한
도깨비춤을 춘다
메피스토를 벗어난 파우스트가
하늘에 가슴을 대고
탱고를 춘다

흰구름 너울에 띄매여
획 낚아채어도 좋을
살덩어리
오르다 곤두박질칠 때마다
움켜쥔 손바닥에서
못박힌 냄새가 난다.



윤석주

《시와사람》 신인상으로
등단, 현재 곡성겸면농협
재직

시

•

마음속 길 하나 지우며
겨울비
봄의 정령
바람은 떠나온 곳을 생각
하지 않는다
山寺에서 띄우는 편지
交感
氷山
芒種 무렵 1
芒種 무렵 2

마음속 길 하나 지우며

산을 오른다. 능선으로 난 평탄한 길을 버리고 가시덤불 잡목 우거진 비탈을 택해서, 마른 풀썩 사이사이 훈김이 돌고 다시 새순이 돋는다. 밑둥이 늙은 산철쭉은 울봄도 젊은 날 그리움을 지우지 못했는지 온몸을 활활 태운다. 마음으로 짐을 졌어도 발걸음 무거운 오늘, 사랑으로 진창이 된 마음의 길을 지우며 새길을 찾아가지만 여전히 내 생의 낯선 비레만 보일 뿐이다. 그대가 바람처럼 가슴을 홀고 지나간 지금은, 가녀린 풀잎 하나 흔들리게 할 수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이 미움이나 원망이 아님을 그대는 알까. 길을 지워 마음을 비우고, 비워진 만큼 깊어져서 세월이 흐르는 더 깊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겨울비

—누님에게

한겨울, 이삼 일 간격으로
비가 내립니다 봄은, 아직도
먼 산봉우리 흰눈 속에 갇혔는데
오늘은 고조곤히 지춌땀니다

머언 남해안
비린내 확 풍기는 초라한 어촌
정제문을 열면 작은 파도가
강아지처럼 쪼르르 달려들던 곳

남색 치마 아직 물 바래지도 않은
그해 겨울,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던가요 고기잡이 나간
남편은 봄꽃 다 이울도록 돌아오지 않고

행여, 풍문에 무슨 소식 하나 물어올까
빨발 해태목으로 서서 견뎀은 나날, 시방도
질퍽할 터인데 또 겨울비가 내립니다
창호문 치는 신음같은 빗소리에 마음은
또 얼마를 떠돌아야 하나요

봄의 정령

가만히 바라보면 잿아드는 저 들판에
가늘게 흔들리는 山根머리에
버들개지 잔털 보송보송한 몸뚱이에

그들은 온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와서
창백한 햇살 살비심 타게 하고
움추렸던 나무들 옆구리 간지르고

바라만 보아도 어질머리 일어나던
형클어진 실꾸리갈던 추위,
접신(接神)한 후 슬슬 풀리 듯
먼 산 올려다 보면 그리운 숨결 들리듯
떠나간 단 한사람 내결으로 돌아 오듯이

잔설 버짐같이 남아 육신거리는
언덕의 이마위로
약속하지 않아도
그들은 온다
연인처럼.

바람은 떠난 곳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이 머물다 간 자리엔 생각만
남는다 별빛 찬란한 밤을 버리면서
쌓았던 사랑의 성벽
잔비에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때
허허의 무게로 짓누르던 상처,
그 흔적들이 바람이 되어
어디론가 떠나길 바란다
바람은 떠난 길을
되돌아 가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이 가는 길은 평생 한번 뿐이어서
떠난 곳에 마음을 남기지 않는다

山寺에서 띄우는 편지

木魚가 운다.

천 년을 울었다는
그 울음 소리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朝夕變하는 오늘,
여기 와서
如如의 세계를 본다.

交感

동리산(桐裏山) 중허리
태안사 범종소리에
마음 트인 민춘란

손바닥만한 별늪에
꽃대궁 밀어내려고
뿌리 한 번 꿈틀한다

순간
겨울잠 자던 청설모
실눈 뜨고 기지개 켜다

氷山

우리들 마음속 닫혀진 창가에서
꽃밭 딛고 올려다보는 雪山이 있다
산 전체가 눈으로 덮혀 있어
풀이나 나무 그 속에 사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온통 하얀 것 같다

눈을 감으면 은빛 깨끗함이
새벽강 잔물결로 밀려와
그 산의 신비로움은 더했다
모두들 그 산에 오르고 싶었지만
정상은 너무 높아 아득하기만 했다

눈을 뜨면 삶은,
끈끈이주걱 몇 포기씩 마음속에 키우며
진구렁 속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마음 한편은
깨끗한 길 만들며 가고 싶어한다

우리들 마음속엔
때묻지 않은 산 하나씩 가꾸며 산다.

芒種 무렵 1

아득하여,

참으로 아득하여 하늘보다 높다는 보리고개를 어린 누이를 떼어 놓고 넘어왔었습니다 그날밤 따라 머슴새는 밤새도록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하였고 어머니는 축 치진 누이를 붙들고 새벽녘까지 나오지 않는 빈 젓 물리다 가슴 쥐어 뜯다 결국에는 기진하여 입술 파르르 떨며 까무라쳤습니다

노르스름하던 보리밭을 쨍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젠 맥노가 얼굴에 가득 핀 어머니 들녘에 짙레꽃 무시로 피는데 아직도 피우지 못한 짙레꽃 한 송이 가슴속에 멍울져 있습니다

芒種 무렵 2

보리 팬 무논둑에서
소 물던 머슴새
배고픈 울음소리

저무는 들녘 가득
초록빛 익는 냄새

꽃보리 서너 다발 베어 지고
지친 발걸음으로
사립을 밀치던 허리 흰 할배

윤석진

전남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무등일보> 신춘문예
평론, <광주일보>시로 등
단

시

•

강마을
어떤 귀향
가을날의 插畵
噴水
적막 강산
석창리 기행
공취헌(空聚軒)

강마을

그 누가 살고 있는지
눈부시게 표백된 갈꽃들 머리 위로
땅거미가 내리는
저기 저 강마을은
험한 옥지기만 나오는 세월
강물 곁에 누워 있고
독새풀 육은 자갈논 부치며
삼질 쟁기질로 쌓아올린 생애들
어이 어이 발버둥치며
떠내려가는데
보듬고 살 그 무엇이 남았는지
아직도 남았는지
개똥불 같은 불빛들은
어두울수록 눈을 부릅뜨는구나
고사리 같은 아들 손에
얼굴도 모르는 할배 손 쥐어주며
전라선 지나는 저 강마을은
그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귀향

똥개 한 마리 없는 고샅길, 간간이 보이는 낯선 양옥집 흘러간 세월 만큼 낯설고, 죽은 가지가 더 많은 몸뚱이로 힘겹게 수액을 밀어 올려 노오란 감꽃을 피운 딸감나무, 푸른 이끼 낀 돌담들, 세월에 지친 헛 개비 같은 동네 어른들 희미하게 웃네. 언제였던가, 벼슬살이 가듯 자랑스럽게 떠나던 그 때도 그랬지. 지금 나는 저들이 바라던 것을 쥐고 돌아왔을까. 자꾸만 죄지은 느낌이 들고. 초여름 햇살만 즐고 있는 마당에 손님처럼 들어서면 눈시울 자꾸 뜨거워지고 돌담에 기댄 분홍 하양 빨강 접시꽃 저들만 홀로 곱네,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꿈처럼.

가을날의 插畫

대인시장 앞을 지난다. 노랗게 물든 바람의 얼굴이 은행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오후. 평퍼짐한 몸뚱이를 입은 늙수그레한 아낙이 양재기에 미꾸리를 담아 놓고 앉아 있다. 말문이 터지지 않는 듯 코앞 지나가는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 시절 사내들 애간장깨나 태웠을 것 같은 얼굴, 가냘픈 몸피에 業인 양 험한 세월의 이력 덕지덕지 붙인 아낙. 어디서 왔을까, 화순 한천 어디 아니면 곡성 겸면? 물에 뜬 기름처럼 영겨주춤 도심 한복판에 앉아 있는 내 어머니 같은 저 아낙은 어디서 왔을까.

噴水

— 다시 오월에

그리운 그대여,
산들바람 한 점 없는 초여름
무엇이 막고 있는지
당신에게 가는 25번 버스
삼십 분이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은행나무 그늘에 숨어
도청 앞 그 분수대
금방 하늘에 닿을 듯이
추락하고 또 솟구치는 물방울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 무수한 시도
우리 삶도 저런 것일까요

물방울 뒤에 숨어 있는
영롱한 무지개들!

적막 강산

두 아름이 넘는 당산나무 밑 책상 위에서 입 찢어지도록 돈을 물고 해죽이 웃는 돼지. 祭主의 허연 수염 끝에 카랑카랑 맏히는 祝文 소리들. 온 마을을 휘감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열두 발 상모들. 처녀들의 달뜬 눈총 받으며 장정들이 두들기는 팽과리 장고 징소리들 싸우며 화해하며 화톳불처럼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지.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어, 어서 저 만큼 세월이 흘러갔으면.

이제, 그때의 장정들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은 나그네 되어 그 당산나무 밑에 서 있네. 봄은 깊었는데 낙뢰 맞은 당산나무는 봄을 잊고. 밑둥치에 둘러놓은 썩은 새끼줄 마디마디 잃어버린 따스한 이름을 하나씩 끼워 놓고 돌아서네, 속절없이.

석창리 기행

보았어. 온종일 하늘 태우는, 떠들썩한 소문만 들었던 제철공장 불기둥. 沿岸을 수놓은 가슴 섬뜩한 검은 무지개들 사이를 뚱뚱 떠다니는 죽은 갯장어 새끼들. 희미한 비린내 쫓아온 도둑고양이가 龍骨만 남은 폐선을 뒤졌어. 아, 어디로 가버렸을까. 萬船의 깃발 올린 고깃배를 모으는 集魚燈처럼 밤새 선창을 밝히던 연분홍 色燈들. 방파제에 쭈욱 늘어앉아 깔깔거리며 갯장어를 낚던 조무래기들. 먼 바다에 풍당풍당 빠지는 동백꽃 노을 함지박에 이고 돌아오던 아낙네들. 저물녘 석창리에서 보았어. 한 폭의 수채화 같던 갯마을 대신 두 동공을 가득 채우는 검은 그림자를.

공취헌(空聚軒)*

곳간에
빈 향아리만 쌓아 놓고도
마음 넉넉한 집이 있습니다

시를 쓰는 바깥주인은
새말만 가득 담아 놓고
꽃을 좋아하는 안주인은
향기만 채웁니다

가을,
텅 빈 집안 기웃거리던 바람이
나뭇잎 떨귀
마당 가득 채워 주고 갑니다

* 空聚軒 : 윤석주 형님 시골집 덕호



이종인

《문학 21》으로 등단, 시집
으로 『사랑 하나 묻어두
고』

시

•

늦가을
다원에서
무등산 29
계 세상
손 안에 인생

늦가을

풍요가 넘실대는 들녘에
질은 안개 한 돌금씩
며칠인가 아침마다 깔더니
속마음 위안주던 황금빛
자고나면 덧칠해 가는 계절

그 빛 씻어 지우고 싶어
천둥 번개에 소나기 강풍까지
무대포로 아무데나 뛰더니만
밤마다 야금야금 한 발작씩
내성적으로 다가서는 단풍

9월은 아장거리다 10월은 건다가
11월은 뛰어가 버리는 뒷모습이
요즘은 끼니 거른 거렁뱅이
먹을 것 훔칠 듯 달려들어
빠알간 나뭇잎 쪽지를 떨궈 놓고
아담을 유혹하는 이브가 되어
기다리는 나목(裸木)들의 잔치는

사랑의 시작인가
이별의 끝인가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을 시도하며
적나라한 고행의 길을 뚜벅거리는
시방은 늦가을

다원에서

—보성대한다업

언덕 너머 울포의 비릿한 갯내음이
이국적인 다원의 향기로 젖어 들고
서편제 가락 꿈틀거리는 이랑 사이
진정한 보성 소리가 들릴 듯

섬세한 남도의 대표적인 풍광 속으로
싱그런 은총이 푸르름으로 넘쳐 녹아나
아무리 부정한 자도 이 성역을 보기만 해도
원초적 인간으로 정화되는 녹색의 여과지

바람은 끊임없이 부정을 보내고
색상은 안정되게 심성을 달래며
향기는 은은하게 육신을 감도니
살고 싶은 이 자연의 유혹

백 번을 오고 만 번을 봐도
가슴속을 파고드는 짜릿한 감동에
인간의 한계를 마하 100으로 넘어
잠시나마 무릉다원의 시선이 되어 보네

무등산·29

—통제구역 밖에서

해발 1187m

육이오 전에는 평범한 산

天地人 三皇峰을 거느리고

仙政을 했을 만한 역사가 있을진데

전쟁이란 포로가 되어

높은 뒀 파헤쳐 미사일을 장착하고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하늘 땅 가리지 않고

평평 터지며 요란할 것 같은 정상

지금도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공대공 지대공 폭탄들의 내부에는

뜨거운 맥박이 뛰고 있다

(경고:여기서부터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발포하겠음 8989부대장)

무작정 산을 오르는 자도 있을까

하기야 명퇴다 불경기다 복잡하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기도 하겠지

땀 흘린 목마름으로 쉬고 싶은 욕망을 구속하고

출입엄금 경계선 밖으로 천천히 오른다

풀지 못한 갈증을 버티며 돌뿌리에 채이면서도

눈은 한사코 제한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간다
철조망 넘어 푸른 제복의 청년들
같은 남자들이면서 내가 어째서
싸잡아 출입제한이라니 서운한 마음 산바람에 날린다
거뭇거뭇 입석 서석까지 세월에 그을린 경륜들이
아무나 찾아와 보라며 여기저기에 무더기로 있다
구름 헤치고 산 위까지 찌르는 무수한 빛발의 주사
한 줌의 흙 한 치의 땅도 빼가지 않으려는
고귀한 생명들의 언저리에 包頭를 꽃아 두고
瞳子を 굴리는 哨兵의 번득이는 눈초리가
통제구역 내에서 이륙해 푸른 영공 침략자들이
오지 않더라도 통일 뒤의 평화를 갈망하고
수없이 쏘아대며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계 세상

태고 적부터 대 이은 터전
땅심 깊은 옥토 상속 받아
비릿한 갯내음도 정들고
성난 파도 친구 되었네
썰물때 비누방울 놀이 하다
밀물때 하루 두 채 짓는 건축가
물나면 집 잃고 울다
목쉬어 말 못하는 병어리
밤낮 없는 파도소리에
막혀버린 귀머거리
매맛을까 방탄복 등에 업고
슬금슬금 좌로 가는 비겁자여
하지만 얇은 데 사니
빠져 죽을 염려 없고
질퍽한 진흙으로
광대처럼 분장도 하고
튀어나온 방파제 돌담에서
밤낮으로 숨바꼭질도 하고
육지가 무서우면 바다로
바다가 싫으면 육지로

거주이전 자유가 있고
아무리 많은 집 지어도
신축신고 준공검사 재산세도 없고
좌우측 통행 무작정 다녀도
통행세, 입장료, 벌칙금 없어
얼마나 좋은가
싸우지 않으니 평화가 있고
내 맘대로 사니 자유가 있고
빠져 죽을 염려 없어 장수하고
모두가 내 땅 내 집이니 부자요
빨 위에 모든 자식들
날로 번창하니
수부귀다남자의 행복한
게 세상 부러워

손 안에 인생

손 쥐고 헤엄치듯
쉬운 줄 알았던 사람살이
손바닥만한
행동반경의 언저리에서
새끼손가락도 안된
자식들을 거느리며
손금처럼 얽히고 설킨
미묘한 세상의 일
손가락 오그렸다 펴는
십 년도 아니 살면서
손끝 하나 까닥 않는
신세대의 평안과
지문같이 선명한
자식들의 우상 속에서
손등보다 고르지 못한
한 평생을 일구며
한 응큼 흐뭇하게
가슴 부푼 날은 한 번도 없고
손톱 만큼의 재산도
갖고 갈 수 없는 마지막 운명

하이얀 A4용지 이력서 한 장 속에서
 생을 살아 온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 불쌍한 당신



차 경 섭 영 남

《시조문학》 시조시 천료,
제25회 통일문예상 수상,
시집으로『쑥밭에 장미꽃
이 피는 날까지』『가을영
가』『오월의 등대』『사랑
은 다시 샘솟고』『천년을
이어온 겨레시조』

시

●

아름다운 곡성
고향
전적지
밀밭
전설
길쌈
곡성의 노래

아름다운 곡성

산 많고 물 맑으니
아름다운 터전이요
천천은 웅색해도
구비구비 흐르구나
한 폭의
산수화 같은
곡성이여 고향이여.

고향

그늘진 골짜기에
소슬바람 바빠지고
서산에 기운 해는
비단물을 드리건만
그리운
고향 얘기는
해도해도 끝없어라.

전설

한평생 복장단에
춤을 추니 일산이요
텃텃한 막걸리에
쭈대머리 하였구나
신통한
신선바위는
하늘마저 감동했고.

길쌘

연약한 허리마다
섬섬옥수 풀칠하니
신명난 북소리는
가난살이 탄식이요
눈 덮인
버들강아지는
탐스러워 요긴했다.

곡성의 노래

푸르른 첩첩산이 높고 깊어 수려하고
계곡에 흐른 물은 명경지수 선약이요
푸드득 솟는 장끼는 까투리를 찾는구나

도림사 가는 길에 청계골은 선경이요
선인들 풍류하니 반석마다 시구더라
펼쳐진 무릉도원이 여기런가 하여서

골깊은 숲터널은 물소리를 벗삼았고
동산리 백사장에 환희로운 동심이여
춘삼월 화전놀이에 미나리깡 불티난다

기맥힌 바위섬은 전설되어 우뚝하고
성출봉 형제봉은 또 하나의 명승지여
지금도 배짖 소리는 아름답게 흐르나니

태안사 가는 길에 원시림은 하늘 덮고
동악산 통명산은 아름다운 명산이라
쟁하고 햇볕들 날이 성큼성큼 다가선다.

차 의 섭

농업은행기념현상시부문
당선, 《협동》지 시 추천완
료(서정주)

시

•

설날

處女 總角

바둑

歲月

설날

하늘도 땅도
죄 새하얀 백지 한 장
흰 羊의 솜털보다도 더 희보얀 날
태극기 한 장으로 메워버린 餘白에서
쑥잎만큼 돌아나는
까치의 발자국을 들여다 보면
고 축축한 팔팔한 숨결.
하나씩 하나씩 곱게 물들인 것들이
빼악거린다.

곰삭은 골목마다
반드러운 윤기를 펼쳐이는
日月의 첫순에 자리한 망울들의
뜨거운 입김
가지마다
파릇파릇한 저 맑디 맑은 축복들
후복한 몸짓이여…….

處女 總角

하늘과 사랑은 한 꺼풀의 차이
시퍼렇게 시퍼렇게 가꾸어 간다.

너와 사랑의 차이는 공만한 것.
치고 받고 받고 치고
땀 뻘뻘 흘리며 가지고 논다.

잔디밭에서 잠자리를 날리면
하늘은 너무 뜨끈뜨끈해
손바닥을 퍼들면
여름은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별씨 가을 달이
덩그렇게 익어 있었다.

밤낮.

골목마다 외나무다리를 놓고
목 바치고 섰다.
어떤 골목에선
골라 잡아 백원씩

옛장수의 가윗발이
歲暮의 산거리를 후들어대며
덤으로도 준다는 풍년을 판다.

바둑

익숙한 지름길을
영 가지 못한다.
공교로운 한 자리를 비집고 들면
또 부딪치는 都市計劃.
어디나 먹줄로 통겨 놓은
반듯반듯한 秩序.
굳이 낮가릴 건 없어
正道로 正道로 간다.

아우성이면 다시 이는 소리개들.
구름은 스스로의 자리에서
제대로 사라지고
마무린 作業들이 줄지어서
하루를 다독이면
江가로 江가로 밀리는 햇무리.
동지 선달 짧은 날
비끼는 햇발을 의식해
말(馬) 귀를 달아치는 言語들이
이따금 석양을 깨뜨리면
좁쌀밥은 이미 노오랗게 뜬이 들어

뜨끈뜨끈 김이 오르는데
담 너머는 곧 한 끼 저녁 때울
거리가 없어 술을 달아매고
목놓고 있다.

歲月

물레에 파아란 歲月이 감겼다.
물레에 또 파아란 歲月이 감긴다.
물레에 그렇게 목메인
노래 하나 감긴다.

하 바스라진 오늘은
저 하늘의 높이에 겨누어
숫구치고 싶은 가슴
이리 발버둥 치고
낮달 마냥 저 하늘에 걸린
내 故鄉이 희다.

시나브로 노새 등에 달이 걸리면
울엄마가 우물 길러 손을 비시던
내 고향이 희다.

하 바스라진 오늘은
오막살이 한 間이나마
지니고 싶다면
그 사랑의 노래 하나 되살아

내 귀가 따갑고
그만치 菩提心으로 감기던
파아란 歲月이 미치게 쓰리구나.

미지근히 이 땅바닥에
봄이 덩기면
무릎 꿇고 울며 빌던 그 얼굴은
어느 하늘가에
낮달마냥 걸리고
살 아프게
살구꽃은 피어 피어
찌릿찌릿 오늘이 통 맵구나.



안태봉

본명 赫 자 泰鳳 호 白
齊, 韓漢文字學會 副主席,
翰苑書藝研究院長

시

●

春夜獨酌
農家怨
白石灘
林居自樂

春夜獨酌

春夢悠揚到曉醒 梅花枝上月亭亭
如今始辦生涯淡 不買良田買六經.

봄밤에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한가로이 봄꿈을 즐기다 새벽녘 깨어 보니
매화가지 위로 덩실 달이 떠 있다.
이제는 힘써 담박하게 살기로 하자,
좋은 땅 사기보다는 책이나 사 보면서…….

安重燮(1843~1909) 字는 聖心, 號는 海史, 順興人으로 梧谷 梧枝出身이다. 高宗 19년(1882)에 成均館士에 오르고 豪爽慷慨한 性品에 姿貌가 甚偉하여 鄉國이 모두 우러르는 大器로서, 斷髮令과 乙巳條約을 降壓한 倭寇의 凶計를 간파하고 李松沙 등과 함께 反對하는데 앞장서자, 이를 좇아 京鄉이 蹶起함에 이르러 이로 因하여 倭寇의 逼迫과 禍를 입었던 韓末 憂國之士의 한 사람이었다.

農家怨

野翁叩我碧山居 梗咽農談日夕起。
今年往干東鄰富 纔辦數畝石山趾，
見星輒出見星歸 不違天時終如始，
手足胼胝峽磧鑿 汗液滂沱午日耜，
彼蒼者天監孔昭 暮暮朝朝呼庚癸，
土瘠苗疎無穀出 荒租三四石而已，
依例分半送田主 餘粒卽無無有爾，
縣令催稅走令甲 夜犬亂吠東西里，
里胥踞門嗔晚納 爛說官家毒鞭箠，
老婦無語兒索飯 涕泗凝眼相對視，
寒閨日夜不住織 一疋昨賣城南市，
今冬雪裏那掩體 四壁杼柚空自倚，
大兒小兒色淒涼 教收橡實登節彼，
得過且過諸般說 辛酸不忍掛牙齒，
莫道百年如須臾 我願雙丸浙如矢。
一語一嘆聲轉塞 使我心寒到骨髓。
又有片言寄有所 白馬青袍誰家子，
綺羅遍身食方丈 眼中不曾識耒耜，
別惡龕套狗監役 武斷勒差尺一紙，
官雖云美奈錢何 斥土退產心如燬，

那得乙覽如白日 遍照無告窮鄙裏.

- 野翁 : 농사짓는 늙은이.
- 胼胝 : 굳은 살이 박히고 살갓이 틈.
- 彼蒼 : 저 푸른 하늘, 가슴속의 한을 호소할 때 쓰는 말.
- 庚祭 : 양식, 옛 군중(軍中)에서 양식과 마실 물을 암호로 쓰던 말로 여기서는 끼니를 때울 음식을 말함.
- 令甲 : 제일 첫번째의 명령.
- 鞭箠 : 채찍질.
- 節彼 : 詩經의 節彼南山에서 나온 말로 높고 험한 모양.
- 雙丸 : 日月, 곧 세월을 말함.
- 食方丈 : 방장은 三神山의 하나, 신선놀음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것.
- 作者原註 - 勒差~ 강제로 떠맡기는 일.
- 乙覽 : 임금의 독서, 낮에는 政務를 보고 乙夜에(밤 열시) 책을 보게 된다는 데서 온 말.

농가의 원망

야옹野翁이 산에 사는 나를 찾아온 날
목이 메는 농사이야기로 하루 해를 보냈다.
「올해도 이웃동네 부잣집을 찾아가
겨우 산다랑지 돌발 몇 이랑을 빌렸다고.
별을 보고 밭에 나가 어두워서야 돌아오곤 하며
시절만이라도 풍년을 바라 일구었오.
손발이 부르트도록 산골 물길을 뚫고,
피약별 아래 팔죽같은 땀으로 김을 맨다오.
하늘이나 알꺼나! 저 푸른 하늘이나 밝히 살피실라나!
조석 끼니걱정으로 탄식하라 뿐.
박토에 성긴 이삭이라 소출마저 없다보니
결보리 서너 섬이 고작이라오.
으레 절반은 주인에게 보내고
남은 알갱이가 얼마나 되겠오.
원님은 세금부터 내라고 득달같은 독촉을 보내고,
위아래 동네마다 어지러이 밤개 짖는 소리.

거만한 구실아치 사립에 걸터앉아 세금납부 늦었다고 꾸지람이고,
일발린 관가의 말들은 채찍보다도 매섭다오.
늙은 마누라는 말이 없고 애들은 밥달라고 보채대는데,
눈물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랴오.
냉돌방에 밤낮으로 베를 짜서는
어제 장에 한 필을 내다 팔았으니
금년 겨울 엄동설한에 뭇로 몸을 가릴지.
네 벽에는 덩그라니 북, 바디만이 내걸리어 있오.
큰아이 작은아이 물골이 말이 아닌데,
도토리나 주워 오라고 험한 산으로 올려 보냈오.
너무하다고들 말들을 할 터이지만,
참기 힘든 고달픔이라, 아예 이빨을 걸어 매두어야 할까보오.
백년 한평생이 잠깐이라 말하지 마오,
세월이 살처럼 빠르기만을 바랄 뿐이오.」
말 한 마디 하고, 탄식 한 번 하는 고된 소리 메이고 만다.
내 마음 또한 소스라쳐 골수에 치민다.
군말 한 마디 덧붙여 두노니,
백마에 청포 입은 저 젊은이는 뉘집 아들인가,
비단옷에 잘 먹은 살찐 그들이랴
안중에 농기구 따워야 알 리도 없다.

벼락 감투 쓰고 감역벼슬을 한 개가 있었지,
 강제로 떠맡은 벼슬장 종이때기,
 직함이 좋다한들 그 돈이 얼마인가,
 땅도 재산도 뺏기고 나면 마음은 활활 타는 것을…….
 어찌 이런 사정을 임금이 흰히 읽어 보게 할 수 있으랴.
 첩첩 막혀 보고 되지 못한 이 기막힌 사정들을…….

原註 - 作者原註~是時，蔭仕初窠，若都事，若監役，若參奉，若
 監察，苧隨品優劣，定價高了，京鄉浪悖之類夤緣作奸，挾
 史胥，廣印空名帖，鄉曲間稍號繼糧者，雖其人不知，徑自
 勒差而關囑重復，地方官奉行，惟恐不及是謂之別惡龕套
 以方言訓霹靂曰，別惡訓帽曰，龕套也。一徑勒差，則其無
 不摧滅類霹靂云。湖西之濱，有姜家婦，寡而老家，稍溫無
 子女與一犬相守，名之曰福狗。客有過之者，聞其呼福狗，
 謂男子名，遂以姜福九，勒差監役及索價至，寡婦噫曰客欲
 見福狗乎，高聲而呼，一犬搖尾而至，客亦大笑而去。湖西
 之，有狗監役，一時傳笑。

이때 특채(特採)로 벼슬에 오르면 처음에 도사(都事), 감
 역(監役), 참봉(參奉), 감찰(監察) 등을 받게 되는데, 그

품계(品階)의 우열에 따라 가격의 높낮이가 정해졌으니, 경향(京鄕)의 방자하고 못된 무리들이 뇌물과 연줄을 타고 작간을 하여, 큰 관인(官印)을 찍은 벼슬장에 이름 쓸 곳을 비워 둔 채로 첩지를 들고 다니며 동네골골이 먹고 살만한 집을 물색하여 자기도 모를 벼슬장을 떠맡기고 돈을 빼앗아가지만, 관원들의 위세에 놀려 거둬지는 패아에도 어찌지 못하였으니, 이를 일러 벼락감투라 하였다. 시칫말로는 벽력(霹靂)을 별악(別惡) 곧 벼락이라 하고 모자를 감투(龕套)라 하였으니, 저희 마음대로 벼슬을 붙이고 떠맡김이 벼락치듯 하였음으로 벽력이라 함이다. 호서지방 어느곳 강씨네 집에 과부가 있었다. 자녀도 없이 낡은 집에 어렵게 살면서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름을 복구(福狗)라 하였다.

아전들이 지나다가 「복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필시 이 집 남자의 이름이 「복구(福狗)」인가보다 하고는 이름을 비워둔 공명첩(空名帖)에다 강복구(姜福狗)라 써 넣고 감역(監役)벼슬첩지를 그 집에 떠넘기며 돈을 내라 드리대자, 그 과부가 하도 기가막혀서 하는 말이, “나리들, 「복구」를 한 번 보시겠오?” 하고는 큰 소리로 「복구」를 부르자,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지라, 그 아전들도 이를 보더니 크게 웃고는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호서지방에서는 「개감역」을 두고 웃음거리로 삼고 있다.

白石灘

清絶白石灘 行吟酒堪把
春寒尙峭尖 何事却忘下

- 白石 : 여기서는 백의민족을 상징하고 있다. 이 詩는 해방된 조국의 어수선함과 몽매에서 깨어나지 못함을 노래하고 있다.
- 行吟 : 졸졸 소리내며 흐르는 모양.
- 酒堪把 : 술이 얼큰히 취하여 기분좋은 상태, 堪은 하늘.
- 峭尖 : 송곳으로 찌르듯 몹시 쌀쌀함을 말함.

흰돌여울

티없이 맑은 백석의 여울이여
주홍에 겨운 듯 졸졸 흘러야 할테다.

봄추위 아직 저리도 매서운데,
어인일일까, 흘러내림을 잊고 있음이.

安燠(1881~1956) : 字는 子精, 號는 憤庵 또는 倮溪, 順興人으로 梧枝出身이다. 累代의 家業을 이은 韓末과 民國初의 有數의 漢學者로 倭寇에게 나라를 빼앗긴 분함을 自號인 憤庵으로 表現하고, 數千의 高弟를 輩出하였으니 그 學門의 高峻함이 一世에 風靡했다.

林居自樂

人間何處是安平 自愛雲林遠市城
講禮論詩渾忘世 種蔗播傭苟營生
遠朋時至開談笑 群幼齊來供歎聲
省舊紬新欣不寐 夜寒樓靜一燈明。

- 雲林：안개 자욱한 숲, 여기서는 세속을 떠난 한갓된 시골.
- 市城：도회지나 변화한 저자거리.
- 種蔗播傭：감자심고 기장을 파종함. 먹갈 것 없는 곡식을 가꿈.
- 省舊紬新：溫故知新과 같은 뜻, 옛것을 거울삼고 새지식을 닦음.

시골 삶을 즐김

사람 사는 곳 어디라 이만만 하겠는가.
숲이 좋아 저자거리를 멀리했다.
예(禮)를 가르치고 시를 얘기하며 세속을 모두 잊고
감자심고 씨뿌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네.
먼데서 친구 찾아오면 담소로 맞이하며
올망졸망 어린이들 즐겁게 노닐게 한다.
옛것을 살피 새지식 쌓기에 밤을 새노니
밤기운은 차가워도 고요한 다락방에 등불을 밝힌다.

趙敏植(1881~1970) : 字는 士淸, 號는 一軒으로 玉川人이며 梧枝出身이다. 韋堂 趙章燮先生의 子로 家業을 이은 韓末民國初의 漢學者이며, 歷史의 격동기를 不遇하게 살다가 性理學과 禮學에 밝은 近世에 드문 學者로서 수많은 高弟를 輩出하여 當代泰斗라 일컬었다.

남성숙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시집으로 『바람의 끝』 『왕이여! 전라도 남자를 보시오』 『호남사상 호남문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호남인물』, 현재 광주매일 문화부장

시

●

소설을 위한 이야기 시—
IMF와 텔레비전

소설을 위한 이야기 시 - IMF와 텔레비전

1.

쥐가 낙엽을 몰어다 뒷목에 두고 간다. 놀랍게도 엿저녁 지가 먹다 만 생선쪼가리 위에 었는다. 쪼르륵 오던 길로 달려나가더니 이번엔 붉은기가 많은 감나무 낙엽 두 장을 그 위에 갖다 놓는다. 감쪽같이 간식을 숨겨놓곤 콩알만한 두 눈으로 주변을 휘두러보고 또 뺨 나간다. 그러나 웬걸, 천장에 숨어있던 들고양이가 날쌔게 몸을 날려 순식간에 낙엽과 생선뼈를 입속에 넣어버렸다. 쥐가 며칠간 모아둔 것들을 순식간에 씹어삼켰다. 가만보자, 낙엽속에 숨어서 쥐의 생선을 훔쳐먹은 놈이 또 있다. 수많은 개미들이 고양이의 기슭에 놀라 풍지박산 흩어졌다. 개미들과 몸싸움을 벌렸을 이름모를 곤충들도 벽을 타고 달아나기 바쁘다.

저 미물들은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숨소리도 알고 미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 벽에 걸려있는 몇 년전 것 달력이나 멈춰버린 시계, 구석지에 처박힌 바가지와 똑같이 여긴다. 이렇게 종이에 연필을 끄적거리고 있어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못쓰는 기계가 체자리에 그렇게 있다고 여긴 듯하다. 아니면 사람 모양을 한 큰 인형 하나가 버려져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박제인간이 되어버린 나. 눈알을 굴려보아도 그렇게 생겨먹은 마네킹 쫌 취급해 버린다. 그래서 인간인 내가 자

신들의 적도 아니요 위험한 물건도 더 이상 아니다. 정말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인 내가 생선쪼가리로 삼질하는 고양 이와 쥐가 무섭다. 어느날 먹을 것이 없어지면 나를 뜯어먹으려고 덤빌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든다. 지금은 손이라도 움직여 쫓을 수 있지만 손마저 마비되면 눈 번히 뜨고 있는 내 살을 저것들이 덤벼들어 뜯어먹고 갹아먹는 꼴을 봐야 할 것이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3각구도로 정립되면서 지지 지지 텃밭을 굳히고 취약지를 공략하는 등 지역전략을 지지 지지 찌리리 찌찌찌 이회창 후보는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경남을 끌어 지지 지지 찌리리 뼈뼈 서울에서의 대세를 장악한다는 찌찌찌 김대중 후보는 아성인 서울 호남을 공고히 하고 동쪽으로 뼈이익 끼익 찌찌 지지지 이인제 후보는 우위를 확보한 뒤 뼈뼈지지 지지지 열계를 상쇄한다는 전략 지지지지지...”

옆방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 24시간 아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켜져 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가 한 열흘 되니까 그 시간만큼 켜

져 있었다. 정규방송시간 외에는 하얀 화면에 지지지 지지지 소리를 내고 방송국에서 전과를 발사하기 시작하면 화면이 과딱거리며 중단과 계속을 반복했다. 이 집의 텔레비전을 켜 사람은 물론 나다. 마당에 풀이 무성하고 문짝이 떨어져나간 귀신나을 법한 이 집은 세 칸짜리 일자형이었다. 부엌 바로 옆방은 집주인이 이사하면서 버린 장독이며 부서진 선풍기와 농기구가 꼭 들어차 있고 제일 가방에는 장판이 걸어진 한쪽에 14인치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전원을 켜고 켜보니 화면이 겹쳐 나왔다. 텔레비전을 라디오 삼아 들으라고 맘 먹고 가운데 방에 들었던 나는 그때, 텔레비전을 켜놓고 건너온 것을 매 시간 후회했다. 시간을 잊어버리고, 내 공간을 잊어버리고 빈 집에 들었던 내 생각을 여지없이 뭉개버린 것이 그 텔레비전이었던 것이다. 꺼버려야지, 꺼버리려고 맘먹었을 때 이미 나는 절반이 죽어 있었다. 부엌 옆방에서 반이 깨진 상을 찾아 가운데방에 가져와 앉아 ‘유서’를 꼬박 이틀 정도 쓰고나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나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다. 허리 아래쪽이 뻗뻗이 굳어 퍼지지 않고 꼬집어도 아무 감각이 없었다. 기어갈 수도 없고 다리를 접거나 펼 수도 없었다. 물론 먹은 게 없으니 대변 소변은 몸안에 채곡채곡 쌓여 독을 발사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배꼽 약간 위까지는 죽었다. 자신이 죽어가는 걸 이렇게

리얼하게 지켜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처럼 내린 단비가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면서 생육부진과 정식 지연 등 가뭄피해가 우려되던 각종 발작물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번 비로 그동안 지지지 무 배추를 비롯 지지썩 마늘의 생육이 부진하고 양파의 지지지 피피 피피피...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했 지지지 찌리리지지 피피 지지지 대통령 선거가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각 당과 지지 지리 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지지지 지직... 대선후보 3자의 공동 기자회견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지지지 지지릭 지지지 지릭 우리가 집권하면 근본적인 정책처방을 내놓고 흔들림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 신인도 회복에 총력을 지직 지리리 지지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엷저녁 어린 쥐 한 마리가 내 다리를 물어뜯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른쪽 가운데 발가락을 깨물었다. 죽은 다리를 쥐가 물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너털너털한 문짝 사이로 보름달이 슬곳이 비쳐드는 것이 좋아 잠들지 못하고 달과 눈맞춤을 하고 있을 때, 천정에서 푹 떨어

어진 아기쥐 한 마리가 한참 방안을 배회하더니 상 밑으로 허영계 나와있는 내 다리를 이리저리 훑쳐보았다. 올라타고 앉아 곡예를 몇번 하더니 감촉이 좋았던지 살살 이빨로 갉아 보았다. 그때 나는 보았다.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는데, 내 살점이 쥐 입속에서 씹히고 있었다. 감각이 없지만 썩지 않은 피가 쥐 입가에 번졌다. 아기쥐는 뜻밖의 횡재에 놀라 허겁지겁 급하게 내 발을 물어뜯었다. 그 아기쥐가 보기에 내 다리는 시체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자연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는 존재일 뿐인데, 인간만이 일방적으로 받고 있진 않은가. 달빛이 아기쥐의 꼬리를 환하게 비추준다. 가늘게 쏙 빠진 쥐 꼬리가 실뱀처럼 달빛에 춤을 춘다. 빨리 죽고 싶다. 아무쪼록 미물들이 내 살 파먹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아기쥐가 갑자기 놀라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가 버렸다. 마침 물어뜯어낸 내 살가죽이 방바닥에 내팽개쳐졌다. 10여분 동안 소리가 끊기고 찌지지 소리만 내던 옆방 텔레비전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말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모처럼 텔레비전이 나를 도와주었다.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시작된 한국경제가 급기야 주권상실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최후의 대안인 IMF의 수렴청정은 저성장 대량

실업 등 엄청난 국민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좌절의 깨달음을 던지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금융기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진정한 새출발을 위한 과제를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텔레비전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한 번도 지지거리지 않고 깨끗한 음질을 들려주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루 종일 반복되는 뉴스를 듣다가 나는 대통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케줄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관계 친구 좋아하는 음식과 영화, 노래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날은 그들 모두가 내 친구같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지긋지긋해지고, 어떤 날은 원망스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무슨 운명이 조용히 죽을 권리마저 확보하지 못한단 말인가. 나는 화장지를 맡아 귀를 막았다. 화장지로는 그 소음을 결코 차단할 수 없었다. 애초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놓아 두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파묻어 보아도 피할 수가 없었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었다. 혹 지나가는 객이 이 집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전기줄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객을 불러들일 재간이 없었다. 큰 맘먹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 번 정도 소리를 질러보았다. 10분이 지나고 한 시간이 지

나도 사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소리를 질러놓고 큰 후회를 했다. 누군가 나를 보면 분명히 집에 연락을 하거나 병원에 먼저 데려갈 것이 분명한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다. 저 애물단지, 죽어도 살리지도 못할 물건. 두꺼비집이 분명 부엌 옆에 있을 터다. 그러나 꼼짝할 수 없는 처지다. 쥐나 고양이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건드리라는 의지를 투사할 수 있으련만.

며칠이나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저 산에서 까치밥으로 남은 감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예민해진 걸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진 않다. 양자 대결 세 갈래 길, 아니, 이 생각은 내가 한게 아니고 금방 텔레비전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내 생각 속에 박힌 것이다. 양자대결이든 세 갈래 길 이든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투표를 할 수도 없고,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내 몸에, 내 몸안에 독버섯같은 암 우산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가슴을 지나 목까지 치밀어 올라있다.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몸 안의 모든 양분을 동원해 암 세포는 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한계선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가 너무 커지만 지나 나나 끝장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일까. 아마 그놈은 성장하는 코드만 가지고 있는 듯하다. 억제 코드가 아예 거세된 체

생겨난 이 높은 어디든 자리를 잡기만 하면 어디서든 커나가는 대단한 놈이다.

4.

아기쥐가 또 찾아왔다. 달이 원인제공자인 것 같다. 달에 비친 내 창백한 발이 무척 먹음직스러웠던지 어느새 공중 비행을 해 내려왔다. 어제 저녁 텔레비전의 실체를 알아버린 것 같다. 놀래서 천장에 올라가 들어보니 가공의 알지 못할 목소리, 육성이 아닌, 마이크음의 실체를 알아버린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시냇물소리나 낙엽 떨어지는 소리와 한가지인 위험한 소리가 아님을 간파한 것 같다. 아기쥐는 이제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어제 먹다남은 발가락들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짹짹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 씹새없이 이빨을 들이댔다. 손에 든 연필을 던져 위협을 해볼까 생각하다 그만둔다. 어차피 죽은발, 내것이 아닌 발, 그 발이 누구의 장난감이 되건 말건 내 소관이 아니다. 조금일도 온기가 있을 때 아기쥐가 신선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시가 아니겠는가. 아기쥐는 거의 한 시간 가량, 달이 나뭇가지에 절반 정도 가려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때까지 오랫동안 식사를 했다. 발가락을 지나 발등과 발바닥을 차례대로 갹

아 먹고 붉어져 나온 뺨을 혀로 핥아가며 맛을 음미했다.

“9시 뉴스를 말씀 지리리 짜익, 한나라당 국회의 국민신당 세 후보는 오늘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 대결 지지지 짜리리 지지 교육발전을 위해 지지지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지지지 지지지지 지지지 지지지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지지 짜리 이 후보는 입시제도 문제와 관련 지지지 지지 지지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지지지 짜 김 후보는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지지지 취업할당제를 지지지 학사관리를 지지지 엄격히 지지지 밝혔습니다. 지지지 학벌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지지지 혁명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지지지 다짐했습니다.”

어떤 때는 다섯시 일곱시 아홉시 열두시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다보면 뉴스를 알리는 신호와 함께 내 입이 저절로 외운 뉴스를 따라하고 있었다. 아나운서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뉴스를 웅얼거리다보면 어느새 세상일에 통달한 사람처럼 내 병을 잊어버렸다. 마치 방송국의 휘황한 불빛을 받으며 데스크에 앉아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된 기분으로 또록또록 시사내용을 얘기하곤 했다. 나를 찾기 위해, 나를 되돌아보기 위해, 더 큰 이유는 혼자 죽기 위해, 그리고 처참한 모습 보이기를 싫어서 먼 길을 돌아 이곳에 왔는데, 어느새 나는 텔레비

전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상한 소리나 신음, 그리고 소리가
꿈길 때 어떤 화면일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무슨 화면이 나갔길래 저
런 소리가 나는 걸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고개를 문쪽으로 숙 빼고서
나는 허탈해졌다. 길은 떠났지만 세상 무엇으로부터도 떠나지 못한
속물, 그것이 내 모습이었다. 인간을 포장해 빛의 마술로 보여주는 텔
레비전의 족쇄 하나 풀지 못하고 얼마 안남은 생을 담보로 나는 미쳐
가고 있는지 모른다.

5.

아마, 봄이 온 것 같다. 쥐가 물어오는 나뭇잎이 어느새 풀꽃으로
변했으니까. 암중은 이미 목을 넘어 눈까지 번졌다. 내일 모레, 뇌까
지 전진하면 이 육신도 끝장이다. 나를 버린 회사, 몸을 버린 나, 나
를 버린 이 우주…… 저 쥐라면 또 모른다. 어디선가 씨감자를 물어
와 내 시체에 꽂아두고 감자꽃이 피는 걸 보고 말지.

차운형

〈체신〉지에 수기 당선, 현
재 목사동 우체국장

수필

●

초년병 시절

초년병 시절

세상에는 헤일 수 없을 만큼 직업도 많다. 직업의 종류가 많다보니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의 삶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내 직장을 내 가정 이상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에 적당히란 없는 것이다. 직장은 결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며 한 번 그 직장에 몸 담으면 평생 사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내 직장을 사랑하고 혼신의 열정을 모두 쏟아부어야 내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격변하는 작금의 전자문명 사회에서는 직장 바꾸는 것을 화면 바꾸듯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 직장 기웃 저 직장 기웃거리는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단 한 번의 직장을 택했고 기왕 직업을 선택할 바엔 국민의 공복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여 체신에 발을 디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직장생활은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점철된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난의 연속이었다. 나의 첫 발령지는 곡성읍내에서 구절양장 비포장 자갈길을 덜컹거리고 부대끼며 한 시간 이상 달려간 지리산 자락 끝에 폭 파문힌 벽지 중의 벽지 목사동 우체국이었다. 우체국에 들어서니 허름한 담장 위로 다람쥐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었다. ‘웬 공공관

청에 다람쥐라니, 이런 두메 산골에서 어떻게 살아간담…….’ 닥친 현실이 도시생활에만 길들여진 나에겐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었다. 또 그렇게 암담해 하면서도 어느 사이엔가 몸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었고, 놀란 토끼마냥 눈알을 굴리다 자연 반사적으로 ‘신규발령 받고 온 ○○○입니다.’며 안쪽 가운데 책상에 앉은 오십대의 사나이에게 다가 넙죽 절을 했더니 너무나 반가워 어쩔줄 모르며 자리를 권한 후, 우체국 현황을 들려주는데 자신은 국장으로 이곳은 무 집배국(집배원이 없는 곳)으로 직원은 나까지 총 3명이며 그렇기에 사람이 부족해 고생이 심할 거라 했다. 한 달간 충원이 안되어 죽을 고생 했노라고도 했다.

그 날부터 각고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국장은 국장이라고, 여직원은 여자라고 숙직에서 제외되니 숙직은 왕창 내 차지요 청소, 심부름 등 온갖 굵은 일은 도맡아 해야 했다. 그래도 낮에는 한가로워 일을 배워 가며 할 만 했다. 농촌 특성상 모두가 들판에 나가 농사일에 매달리니 농사일 끝난 밤이 문제였다. 일찌감치 저녁식사를 마친 주민들이 꾸역꾸역 사무실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객지의 자식 친지들에게 소식을 주고 받는 거의 모두를 밤에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전화 보급이 면 단위에는 부진했고, 특히 목사동 면 전체에 전화를 딱 한 대, 그것이 우체국에만 있었고 그것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목포·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화뿐만이 아닌 전보까지 쳐 줘야 했으니 진짜로 정규 일과시간인 낮보다 밤에 서야 새롭게 일이 시작되었으며, 회선이 낡고 품질이 떨어져 한 번 신청한 전화는 광주가 빨라야 한두 시간, 인천 제주는 칠팔 시간이라, 거기다 잡음은 왕왕거려 통화자 쌍방이 악써대는 걸로 끝나는 수가 허다했고 주로 내가 대신 받아서 상대방 의사를 눈치로 감잡아 중계해야 했으니 거의 매일 밤을 날 새기요, 악쓰기라 정말 짜증스럽고 피

곤한 나날의 악순환이었다.

어이 그 일본이라 진짜로 고통스러운 것은 밤늦게 떨어지는 전보였다. 특사전보라고 이 전보는 우체국에서 8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만 도착하는 전보로 밤 열 시 이내에 도착되는 것은 무조건 즉시 배달해야 했고 전보 내용 또한 취직 통보나 사망 등 시각을 다투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걸 갖고 나가야만 했다. 그러자니 아내와 합동 근무로 사무실의 전화 손님은 아내 몫으로 부부가 배달려야 했다.

희미한 전지불에 의지해 수십 리를 겨우 걸어 전보 수취인 마을에 도착해도 감감한 오밤중에 어디서 누굴 찾을꼬. 남대문에서 김서방 찾지요, 낮선 불청객의 한밤중 침입에 놀란 개들이 두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길길이 날뛰며 달려들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꿈쩍없이 물려 죽게 됐는 걸, 허벅지 장단지 물어뜯기우고 겨우 주인 찾아 배달해 주고 나면 온 몸이 진땀으로 후줄근해지고 눈물은 앞을 가려 돌아가신 어머니를 슬하게 목메어 불러도 봤다. 그것도 봄, 여름, 가을철등엔 익숙해져 적응이 됐는데 한겨울이 문제였다. 눈보라는 휘몰아때리고 웬 눈은 그리도 쌓여 빠지고 처박히고 날아가고 사지는 동태처럼 얼어붙어 오고……. 세상에 이 짓 아니면 못 사나 차라리 그만 두자고 다짐하며 썼던 사표가 몇 십 장이었으며 마음 속에 흘러 응어리진 피눈물의 양금 또한 몇십 겹이었을고…….

그러나 세월은 정직하고 공평했다. 동토의 겨울만이 아닌 따뜻한 햇살 눈부시게 퍼지는 봄날도 주어 모처럼의 휴일엔 가족들과 산에 올라 고사리며 취나물도 난생 처음 뜯어보고 강가에 천렵 나가 매운탕도 끓여 먹는, 대자연 속에 동화되는 즐거움도 주었으니 어찌 공평 않으리오. 그리고 세월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어서 아픈 과거는 추억으로 치유하고 미래는 희망의 보약으로 다스려 다시 건강과 활기를 되찾아주는 것을…….

한해 두해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어느 사이엔가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사동인이 돼버렸고, 목사동을 뜨기가 싫었다. 수차에 걸쳐 벽지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좋은 곳으로 영전시켜 주겠다는 상급 관서의 호의를 번번히 거절했던 것도 피와 땀과 눈물이 삶의 밑거름이 된 정든 땅을 도저히 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칠 년 세월을 살았다. 이제 더 살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전출 발령이 떨어져 목사동을 이별하는 날 이삿짐 차가 출발하려는데 마을 회관 스피커에서 뜻밖에도 ‘우리 부락 발전을 위해 칠 년간이나 애써 주신 차 주사님 내외분이 지금 떠나십니다. 모두 나오셔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서재현 이장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마을 주민 거의 모두가 이삿짐차 주위를 에워싸 손에 손을 붙잡고 부녀자들은 굵은 눈물 쏟아가며, 두 발을 굴러가며 ‘진짜로, 진짜로 가실라요?’를 연발할 때 단장이 녹아내리는 아픔과 감격이 뒤범벅되어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리고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르르 눈 감으면 선명히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또다른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고 오로지 내 직장을 위해 진솔하게 살아가라는 격려의 메아리 되어 나를 부추긴다.

공 선 욱

전남대학교 국문과 중퇴,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
저서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살』 『피어라 수선화』
『시절들』

소설

●

장마

장 마

토요일 오후, 경혜(車敬惠)는 밀린 수업일지를 마무리 짓고 책상을 정리했다. 운동장에 아직 오후의 햇살이 가득 널려져 있었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아이들이 더운 햇살에도 아랑곳 않고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한참 물이 오르기 시작한 운동장가의 미루나무만큼이나 싱싱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들이 햇살과 함께 운동장 가득 출렁거렸다.

경혜는 천천히 교문을 빠져나왔다. 오늘이 장날이었던가. 소읍의 오후는 잔치마당의 뒤끝 같은 파장의 스산스러움이 아직 남아 있었다. 경혜는 천천히 장터를 가로질러갔다. 몇몇 생선 장수와 팔다 남은 듯한 이지러진 딸기 함지박을 앞에 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시골 아낙과 튀밥 장수만이 썰렁한 장터의 오후를 지키고 있었다.

경혜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딸기 장수한테 다가갔다.

“딸기 파세요.”

아낙이 졸린 눈을 번쩍 뜨고 경혜를 한번 올려다보며 환히 웃었다. 경혜도 웃었다. 이지러진 딸기. 아이는 딸기를 사다주면 먹을 줄도 모르고 손에 쥐고 주무르기만 했었다.

“먹는 것을 그러면 못써.”

아이가 이지러진 딸기를 꾸역꾸역 입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이가 죽기 며칠 전이었다.

경혜는 딸기 한 봉지를 사서 장터를 벗어나와 장터의 끝머리를 휘 돌아 흐르는 개울을 건넜다. 새까만 사내아이들이 물 속에 들기는 아직 이른 계절인데도 옷을 입을 채 물 속으로 침범침범 뛰어들었다. 아이들이 물 속으로 뛰어들 때마다 물보라가 자갈한 햇빛에 부서지고 있었다.

경혜는 개울을 건너 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눈에 들어오는 들판 가득히 파란 보리 물결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딸기 봉지에서 핏물 같은 딸기 물이 푹푹 흘러내렸다. 경혜는 다시 일어나 이번에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랐다.

아장(兒葬). 아이의 조그만 뒷등 위에 빨기가 가득 돌아나 있었다.

경혜는 빨기의 하얀 속살을 뽑아 이지러진 딸기와 함께 아이의 뒷등 앞에 놓았다. 뒷등 위 잡목 숲에서 산새들이 조잘댔다. 포르릉 포르릉, 호루 호루 호루루.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전에 맴돌았다. 경혜는 얼굴을 무릎에 묻고 울다가 잠이 들었다.

처음 몇년간은 아이의 뒷등에 와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었다. 그런데 이즈막엔 눈물은 샘솟지만 아이의 뒷등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게 잤아드는 것이었다. 서럽다거나 슬프다거나 고적하단 느낌보다 우선 마음이 편안하게 정돈되어 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경혜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토요일 오후엔 늘 이렇게 아이의 뒷등 곁에 와서 잠이 들곤 하였다. 눈을 떠보면 사방에 산그늘이 내려와 있고 짙 짙거리는 밤새 소리가 왈각 두려워지기도 했었다. 서둘러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아이 뒷등 위의 풀잎들이 일제히 일어나 손을 흔 들었다.

그러면 경혜는 쉽게 돌아설 수가 없었다. 다시 주저앉아 한참을 풀잎에 대고 뺨을 비비고 조그만 뒷등을 한 번 안아주고 나서야 돌아서고는 했다.

오 년 전이었다. 경혜가 막 이곳 조그만 소읍에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로 부임하기 한 해 전, 아이의 아버가 제 여자를 탐하는 떠돌이 사내와 칼부림을 하다 죽었다고 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대처를 떠돌다 색시 하나 얻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남의 땅 농사지만 그래도 정 붙이고 살아보고자 시작하던 첫머리에 그만 임신한 제 여자 하나 두고 죽은 것이다. 아직 식도 못 올리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덜컥 남자가 죽고나자 여자가 그해 겨울, 세들어 살던 할미 집에 아이를 남겨두고 어느 날 밤에 종적을 감추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틀림없이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도망친 그 떠돌이 내와 아이의 어머니가 바람이 났던 게라고.

경혜가 방을 구하러 할미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할미는 돌이 지났건만 아직 견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누룽지 죽을 먹이고 있었다.

“이 방이여, 자네가 살던 방이.”

방 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놓아두고 간 옷가지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화장품들이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널브러져 있었다.

“아이가 아픈가보죠?”

“세상에 몹쓸 어머니도 다 있수. 아무리 새끼가 병신이라두 제 새끼를 떼어두고 도망을 가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수. 요새 젊은 년들이란 게 바람 한번 나면 새끼구 뭐구 다 필요없는 모양이우.”

아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스러웠다. 경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아이 누리의 얼굴이 떠올라 그때마다 발작적으로 제 방을 뛰쳐나오곤 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애기 할아버지가 예전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원자폭탄을 맞았대요. 그것이 내림을 한 모양이우.”

“아이 아빠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으니 색시까지 얻은 게지.”

저주 받은 목숨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졌다.

“아이가 뇌에 이상이 있대나봐.”

경혜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언니 윤혜한테서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수없이 유산을 거듭하다 겨우 얻은 아이가 뇌성마비라니. 윤혜는 경혜한테 일렀다. 잘 생각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자기처럼 병신아이를 갖느니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낫다고. 경혜는 임신 기간 내내 불안했었다. 그래서였는가. 딸 누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체중이 미달이었다. 앓을 나이가 됐을 때, 활처럼 휘어진 허리를 곳곳하게 펴지 못하고 고개만 발딱 쳐들어 엄마를 멀거니 쳐다봤다.

“누리아, 허리 좀 곧게 펴봐.”

“이렇게?”

“아니, 이렇게.”

기껏 엄마를 따라 허리를 편다는 게 어깨만 움직이는 꼴이었다.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남편과 헤어져야 할 이유가 될 줄을 몰랐었다. 언니네는 뇌성마비 조카 하나를 낳아놓은 뒤 예전보다 더 부부 사이가 공고해졌다고 그늘진 얼굴 한쪽에서는 안온한 웃음까지 웃어보였는데.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시면 실컷 원망이라도 해볼텐데 그러지도 못해.”

윤혜가 경혜를 안고 소리없이 울었다.

누리가 세 살이 되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또 한번의 출산이 요구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경혜한테 요구되어지는 출산이 아니었다. 남편은 말했다.

“미안해.”

“미안한 건 저지요.”

“어쩔 수 없었어.”

남편 석준은 이미 경혜가 모르는 새 다른 여자에게 임신을 시켜두고 경혜더러 말했다.

“결코 그럴 생각은 없었어. 실수야. 하지만 엮іл러진 물인 걸 어떡해. 굳이 붙잡지는 않겠어.”

굳이 붙잡지는 않겠다는 말이 어서 경혜 너 갈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로 들렸다. 경혜는 할머니 품 속에서 칭얼대는 누리의 흰 허리를 무심히 한번 쳐다보고 그 집을 나왔다. 누리가 목선 소리로 울어대었다. 목선 누리의 울음소리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독하게 내뱉는 한마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되지 못한 것. 제 허물을 감추고 들어와서는 어디서 부잣집 맘머느리 행세를 하려 들어. 병신 새끼들이나 줄줄이 낳아놀 주제에.”

시어머니의 독기 서린 목소리에 뒤미쳐서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허허, 가는 마당에 너무 그러지 마시오.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소.”

오 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임기 만료 기간이 아직 일년 남아 있었지만 경혜는 시골 학교로의 전근을 자청해서 지원했다. 떠나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분노도 잊어버리고 억울함도 잊어버리고 누리도 잊고 살고 싶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잊고자 들어온 이곳에 또 하나의 누리가 있었다. 경혜의 아버지는 일본 유학길에 피폭을 당했다고 했다. 아이의 조부는 징용길에 저주 받을 검은 재를 맞았다고 했던가.

시골 학교로 들어온 지 삼 년째 되는 지난해 봄, 누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즈음 바람 난 어미의 아이도 죽었다. 먹을 것을 주

면 입으로 가져가기보다 주물럭거리기부터 먼저 하던, 이름도 얻지 못하고 죽은 아이.

경혜는 토요일 오후만 되면 아이의 뒷등으로 달려가곤 해왔다. 거기 가면 딸 누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새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이기도 했다가 누리의 웃음소리이기도 했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경혜는 오래 앉아 있던 풀밭에서 일어섰다. 어둠이 깔린 산길은 이슬이 내리는지 미끄러웠다. 경혜는 조심조심 풀섶을 걸어 내려왔다. 산개구리들이 구울구울 울었다.

“또 애기 뒷등에 갔다 오는겨?”

“네에.”

“그렇게도 못 잊었으면 어디 가서 하나 낳아와.”

“할머니도 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집주인 할미가 경혜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엇그제 윗집 찬수네 집에 이사 온 사람 있잖어. 그 집에 온 남자가 나이는 술창히 먹게 생겼는데 마누래도 안 보이고 아도 없드랑께. 어찌된 건가 허구 물으니 여자는 있는디 애를 안 낳아준디야.”

“왜요?”

“그거는 내도 모르제, 말을 안 해주니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꼭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애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 같여. 멀쩡한 사내 혼자 이 촌구석까지 찾아든 이유가 암만해도, 애를 안 낳아준다고 현 것을 본께 그것이 이유가 되야서 부부생활이 실패를 보고는 복잡헌 것 다 잊어볼자고 여까지 온 지도 모르제.”

할미는 경혜가 아직 시집도 안 가본 처녀인 줄로 알고 있었다. 평생 혼자 살 바에야 어디서 아라도 하나 낳아오란 말을 틈만 있으면 했는

데, 경혜는 그 말이 빨리 시집가란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할미는 신혼초에 남편을 태평양 전쟁터에서 죽은 아이의 할아버지처럼 징용으로 보내놓고 평생 수절하며 혼자 살아왔다고 했다. 혼자 살아오면서 서방은 이미 죽었다 생각하니 아쉽지 않은데 새끼 하나 없는 것이 기증 서러웠다고 했다.

젊어서는 어디서 하나 얻어다 기를려고 해도 남의 눈이 무서웠다고 했다. 주워온 아인 줄 변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서 없는 소리를 만들어낼 것만 같았다고 했다. 주워온 아이가 아니고 어디서 서방질을 해서 낳아온 아이라고. 그래서 할미는 적절한 세월을 베풀질만 하며 보냈다고 했다.

죽은 아이의 어미가 아이를 놓아두고 가버렸을 때 그 어미한테는 욕을 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한테 감사하고 싶었다고 했다. 평생 혼자 산 자기의 서러움을 헤아려 이제사 하늘이 내려준 아이인 게라고 여겨지더라 했다. 할미 말이 늘 그랬다. 사내한테는 계집만 있으면 되지만 계집한테는 새끼가 있어야 산다고. 그것이 사람 사는 꼴이라고.

“그런디 요새 지집들은 그것도 아닌 모냥이여.”

할미는 혀를 끝끝 차며 부엌으로 들어가서 마늘쫑 안주에다 소주 한 병을 들고 나왔다.

“자네도 한잔 혈랑가?”

별이 맑았다. 서늘한 바람이 맑은 별들을 씻기는 밤, 경혜는 또 집주인 할미와 술을 마셨다. 할미는 꼭 토요일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 마을 입구 구판장에서 소주를 사오곤 했다. 처음에는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한두 잔 얻어 마셨던 술맛이 어느덧 경혜 입맛에도 오른 모양이었다.

처음 이 집을 얻어 들었을 때는 학교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대밭으로 폭 둘러싸인 동네가 포근해 보였고, 무엇보다 할미의 집은 동네에

서도 떨어진 대밭 너머 양지 쪽에 없는 듯 숨어 있어서 경혜는 이 집을 보는 순간 안온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거였다. 마침 할미 혼자서 적적하니 사는 집이라 잘됐으며, 할미는 쌀 한 말 값에 예전에 죽은 아이네가 살았던 방을 내주었다.

외따로 떨어진 두 집 중에 작년에 경혜가 담임을 맡았던 찬수네 집이 할미의 집 뒤에 있었는데, 아들네가 작년에 서울로 떠나고 두 노인들만 살다가 일 년 동안 묵혔던 아들네 방에 얼마 전 사람이 든 모양이었다. 늘 찌룩찌룩하고 벌레우는 소리만 나던 이웃집에 요 며칠새 사람 소리가 나긴 했어도 경혜는 아직 한번도 이사 온 사람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다. 갈수록 사람 살아가는 일에 무심해지는 것 같았다.

날마다 학교에 갔다 어두워지면 터벅터벅 들길을 걸어 제 방으로 돌아와 할미가 주는 술 한 잔 걸치고, 커피와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는 다시 날이 밝으면 학교에 나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쓰러져 자고 그러는 날이 반복되었다. 일요일엔 제 방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누워 있거나 유행가를 듣거나, 그것도 신물이 나면 할미처럼 술을 마시고는 어둡고 칙칙한 일기를 써보기도 했다.

할미는 부지런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도 거뜰히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때로는 멀리까지 품삯일을 다녀오기도 했다.

눈을 떴다. 갈증이 났다. 밖은 조용했다. 경혜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비가 오려는가.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왔다. 경혜 방 문앞 장독대에 심어진 덩굴장미가 송알송알 꽃봉오리를 맺어가고 있었다. 경혜는 장독대 옆 수도가로 맨발로 나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틀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상수돗물이 더운 뱃속에 가득 들어찰 때까지 경혜는 물을 마셨다. 아이가 있을 때는 일 나가면서 아이 때문에라도 경혜를 끼워대던 할미가 아이가 죽은 뒤로는 혼자서 슬그머니 일을 나가곤 했다. 심한 요의가 느껴져서 경혜는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았

다.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막 방 문을 여는 참인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

“누구세요?”

“눈 떠보니 안 계시네요.”

남자가 빙긋이 웃었다.

“샵하고 망치 좀 빌립시다.”

“헛간으로 가보세요.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

남자가 힐끗 경혜를 돌아보고 나서 또 한번 입을 다물고 웃었다. 남자가 옷자 경해도 입을 다문 채로 뜻없이 웃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남자가 사립을 나가며 방에 있는 경혜한테 말했다.

“고맙습니다.”

경혜는 방바닥에 주질러앉아 남자한테 들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느릿느릿 혼자 중얼거렸다.

“고맙기는요. 없으면 빌려다 쓰는 거지요.”

그날은 진종일 녹음기를 틀어놓고 실비 바르탕과 이브몽탕과 임희숙을 들었다. 밤에 비가 쏟아졌다. 할미는 그날 받은 일당으로 또 여지없이 막걸리 한 되와 이홉들이 소주 한 병을 사서 품속에 넣어가지고 왔다. 술을 사고도 남은 잔돈푼을 할미는 침을 문혀가며 세어서 속고쟁이 밑에 차고 다니는 색동주머니 속에다 넣고 꼭꼭 여몄다.

“할머니, 윗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샅하고 망치 빌려갔어요.”

“사내 인상이 어찌든고?”

“그냥 뵈로 봤어요.”

“자세히 한 번 봐보제. 듣자하니 마누래허고 사이가 그리 안 좋다는데, 혹시 또 모르제, 그 사이에 자네가 비집고 들어설 틈이 생길지도.”

“할머니는 그렇게 사내한테 관심이 많은 분이 왜 개가를 못하셨어요?”

내사며 팔잔 게라 허고 살아왔제. 그란디 자네 보른 저레 젊은 사람이 혼자 살아서는 안되는디 싫어지네. 그레 젊은 시절 허송세월 허다가, 아무 하자 없는 처녀가 깜박 세월 넘겨 처녀귀신 되면 어찌크나 싶어 내가 자꾸 이레 말이 많아진다.”

“저 처녀 아녜요.”

할미는 놀라지도 않고 자연스레 경혜의 말을 받았다.

“내가 깜박 속을 뻘했구만. 어쩐지 그들이 있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제.”

사 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탄로나는 순간이었다. 경혜의 입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심이 가도 소문 낼 꼬투리가 없던 할미는, 일을 나간 들에서 학부형 되는 아낙네들한테 제 집에 들어 있는 처녀 선생이 실은 처녀가 아니라고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그 소리는 급기야 아이들 입을 통해서 경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날마다 수업 대신에 농번기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보리베기 작업에 아이들을 동원하였다. 경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논두렁에 앉아 상처 난 아이들의 손가락에 머큐로크롬을 발라주는 일 뿐이었다.

보리를 베는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야, 선생님이 처녀가 아니래.”

“누가 그러디?”

“울엄마가. 선생님 자취하는 집의 할머니가 그러드래. 선생님이 애까지 낳고 쫓겨났대.”

“아아, 우리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다야.”

경혜는 아이들 소리를 날날이 다 듣고 나서 혼자 웃었다. 그리고 속

렇듯 잘 생긴 남편을 떠나보내고 평생 수절하며 살아온 할미의 한스런 세월이 문득 경혜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술취한 할미 얼굴과 사진 속의 할미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할미 방을 나왔을 때였다. 윗집의 사내가 대문을 들어섰다.

“할머니 주무시는데요.”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술하고 커피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타가지고 왔는데요.”

“내일 오세요. 할머니한테는 말씀 전할게요.”

남자가 아쉬운 듯 돌아서려다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경혜한테 내밀었다.

“저희집 안노인께서 병이 나셨어요. 서울 아들네 가신다고 두 분이서 집을 비웠는데 적적하군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가서 이거 한 잔 하십시오.”

“밤이 늦었어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소문 나기에는.”

“소문이라니요?”

“할머니가 바라는 거요.”

“할머니가 댁한테 그랬어요?”

“네에.”

대답해 놓고 나서 남자가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솔직하다 싶었다.

사 년 동안 조그만 소읍 학교로 와서 이런 시골에 여자 혼자 살면서 소문 하나 없이 살아온 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용하게 살아냈다. 그건 아이 때문이기도 했었다.

학교 앞 농기계 수리점 명재가 경혜한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다. 그냥 읽어내려 가기도 눈이 신 당신을 사모한다는 사뭇 고전적인 사랑의 고백서였다.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나보다?’ ‘그래요.’

‘그애는 온전한 아이가 아니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자
꾸나.’ 결혼의 약속을 해놓고 명재는 군대를 갔다. 아이가 죽었다. ‘네
가 사랑할 수 있었다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떡하지?’ ‘오히려 잘되지 않
았나요?’ ‘그러니? 그런데 나는 그리 못하겠다. 아이가 있을 때는 같
이 키울 사람이 필요해도 혼자서는 괜찮아. 내 몸 하나쯤은 나 혼자서도
건사할 수 있어.’

명재는 울면서 서둘러 떠났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경혜더러, 제 동
생 담임인 경혜더러 술을 먹고 와서 나쁜 년 강간을 못한 것이 후회
된다는 욕설을 남기고.

“혼자 살아요?”

“지금은요.”

“부인은요?”

“두고 왔어요.”

“시골에 연애하러 왔나요?”

“전혀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혼자면 우리집 처녀 업어가 주라구요.”

경혜가 웃었다. 사내도 웃었다.

“글을 써요?”

“썼었지요. 지금은 옮겨요.”

“번역이요?”

“예에.”

“왜 안 써요?”

“마누라가 그러대요. 이 세상에 해로움만 끼칠 글을 왜 쓰냐구요.
마누라는 그래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계급이 어떻구 노동해방이
어떻구 하는 글을 쓰냐구요. 애를 안 낳아줍니다. 주관하던 잡지가 강

들었다. 꿈을 꾸었다. 아이 꿈, 남편 꿈, 할미 꿈, 사내 꿈, 꿈은 뒤죽박죽이었다.

할미가 경혜의 방 문을 열고 소리쳤다.

“세상에 이야그만 잘 짓는 선상인 중만 알았드니, 삽질도 얼마나 잘허는지 동부발 물길을 조르르 내놔드랑께.”

사내가 노란 비닐 비옷 위로 가볍게 삽을 걸치고 대밭 모퉁이를 돌아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사내가 올라오는 길 옆 대숲 속에서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내가 제 집으로 들어가다 말고 경혜를 돌아보고 싱긋 웃었다. 공연히 화끈 얼굴이 달아올랐다. 할미가 갑자기 경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중제?”

경혜는 무심한 듯 재빨리 대답했다.

“네, 좋아요. 자꾸 웃는 버릇만 빼고는.”

경혜는 장마철만 되면 지병인 신경통이 도져서 병원길 삼아 서울 아들네로 간 노인들이 오기 전에 남자한테 가보리라 마음 먹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누리 같은 아이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이름도 얻지 못하고 죽은 아이 같은 제 새끼 하나 가질 수만 있다면 경혜는 이곳을 떠나 아주 먼 곳으로 떠나 살 작정이었다. 그 아이 하나 키우며.

어미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은 박탈 당한 어미로서의 제 삶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아이 하나만 제 곁에 있으면 자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온갖 빛나는 기쁨으로만 가득 찰 것이었다. 아이를 위하여 커피와 빵 대신 따뜻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을 것이었다. 휴일에는 독한 술과 어둡고 칙칙한 장송곡들 대신에 맑고 부드러운 자장가와 사랑가를 하루종일 틀어줄 것이었다. 결론은 명쾌하였다.

아, 나는 이웃집 사내의 아이를 갖고 싶다.

며칠간 축축한 대기 사이로 맑은 햇빛이 쏟아졌다. 경혜는 햇빛 나는 것을 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사내가 오기 전, 햇빛 속에 활짝 웃고 선 능소화가 가슴 저미도록 황홀했건만 그조차 질투가 나기 시작했다.

끈끈한 욕망이, 헛헛한 제 자궁이, 물기를 머금은 싱싱한 미루나무와 밝은 주황으로 빛나는 능소화와 빗물로 말갭게 씻겨진 하늘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저주받을 화냥년 같으니라구.

할미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할미가 먹다 남긴 쉰 막걸리를 마셨다. 얼굴에 확확 달아오르는 열기, 저주받을 화냥년의 얼굴에 끈끈한 욕망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다. 부엌문을 열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능소화 꽃잎이 바람결에 이지러지고 있었다.

습기 먹은 축축한 바람이 더운 경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가만히 속삭였다. 비가 올 거야. 기다리지 않아도 돼. 비 오는 밤에 사내 품에 기어들라구. 새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슬픔과 분노, 괴로움과 억울함, 술을 마셔서 달래야 하는 웬수 같은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사라진대구.

가느다란 실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경혜는 천천히 이웃집으로 올라가는 대밭 모퉁이길을 올라갔다. 뗏잎들이 은밀하게 소소거렸다. 비에 젖은 참새들이 대숲에서 오물거렸다. 돌담이 둘러쳐진 집 안은 조용하였다. 경혜는 사내의 방 문을 열었다. 사내가 켜둔 워드의 자판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내가 너를 놓을 권리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고 그는 예수를 깨우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를 위협하고 예수라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의 종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벽저벽 사내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 경혜는 재빨리 문을 닫고 마루에 앉았다.

“마누라가 온다는데 방 안이 축축해서요. 불을 지피려고 보니까 성냥조차도 습기를 먹었지 뭍니까.”

사내가 새 성냥통을 들어 보이며 입술을 한일자로 다문 예의 그 웃음을 웃어 보였다.

“심심해서 왔는데 잘됐네요. 그럼 불은 제가 지퍼 드리지요.”

“그래 주실랍니까. 저는 요 앞에 다시 나가봐야겠어요. 온다는 사람이 오질 않으니.”

경혜의 가슴 한쪽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불을 때주는 것만으로 나는 이제 물러나야 한다. 비가 한 열이를 내린다 해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사내한테서 취할 수 없다.

아궁이에 불이 잘 들이지 않았다. 부엌 바닥에 방치되어 있던 뽕나무대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매운 연기가 온 부엌 안에 가득 찼다가 천천히 마당으로 빠져나갔다. 마당으로 빠져나간 하얀 연기 속에 사내의 여자가, 그녀 또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사내 곁에서 있었다. 경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갑자기 한기가 물려들었다.

사내가 제 여자한테 대고 말했다.

“요 앞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마침 밑에 집에 살잖아. 당신 몰래 친구가 됐지.”

여자가 사내를 향해 살짝 눈을 흘기고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불이 잘 들이지 않나부죠?”

“금방 들일 거예요.”

경혜가 웃었다. 웃는 경혜 얼굴에서 술냄새가 끼쳤다. 여자가 주춤 거렸다.

“잠깐만요. 가방 좀 두고 나올게요.”

여자를 따라 사내가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경혜를 향해 말했다.

“그냥 돌아가세요. 이따 이 사람이랑 함께 놀러가겠습니다.”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한동안 마루에 서 있었다. 경혜가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방 안에서 여자가 사내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사내가 급히 방안으로 들어갔다. 은밀하게 타고르던 욕망은 끝내 저주받을 광기로 변했다. 그것은 이유없는 질투였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고 아무한테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마침내 아궁이에서 불이 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른 뽕나무 타들어 가는 소리가 자탁타탁 어두운 부엌에 울렸다. 경혜는 천천히 불이 붙은 나뭇가지 하나를 꺼냈다. 부뚜막 위에 낡은 석유 풍로가 눈에 들어왔다. 경혜는 풍로의 기름통 뚜껑을 열어 나무청에 쌓인 뽕나무대에 기름을 끼얹었다.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밖이 어두워질수록 비가 드세어지고 있었다. 경혜는 기름이 부어진 나무청에 불이 붙은뽕나무대를 던졌다. 불은 삼시간에 온 부엌 안을 환히 밝히며 타올랐다.

그제서야 사내와 여자가 방 안에서 뛰쳐나왔다.

“여보, 저 여자 미친 여자야! 잡아.”

여자가 소리질렀다. 남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경혜를 한번 쳐다보고는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 불이 붙은 나무를 비 오는 마당으로 집어던졌다. 불은 쉽게 꺼졌다. 활활 타고르던 경혜의 가당치도 않은 욕망도 불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경혜는 천천히 제가 사는 할미 집으로 비를 맞으며 내려왔다.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술을 훌쩍이고 있던 할미가 말했다.

“사나이가 안죽 마누래허고 해결을 안 본 모양이지.”

비는 추절추절 끊임없이 내렸다. 유난히 길고 지루한 장마철이었다.



이재백

서라벌예대 문창과 졸업,
《월간문학》으로 등단

소설

•
어두운 터널

어두운 터널

움직이지 마.

여자가 몸을 꿈틀거리면서 저항을 하자 내 안의 얼룩무늬 사내가 나직이 명령을 내렸다. 잘못하면 넌 죽을 수도 있어. 이번엔 내가 중얼거렸다. 스스로 듣기에도 내 목소리는 부슬비가 내리는 날 공동묘지로 불어 온 바람 소리처럼 음산했다.

왜 이러세요? 정말.

여자가 눈을 떴다. 평소 초점조차 흐릿하던 그녀의 눈이 번쩍 빛을 내뿜었다. 그 눈 속에서 얼룩무늬 사내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다 죽여 버릴거야. 독주에 취한 사내의 눈은 이미 초점이 없었다. 번득이는 광기가 내 가슴 안에 두려움의 썩을 쌓아가고 있었다.

난 화가입니다. 지난해의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입 닥쳐 새끼야. 난 원래 화가를 페인트공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내의 입가에 얽은 웃음이 스쳐가는 순간 내 옆구리에서 창자를 꿰는 듯한 통증이 왔다. 통증은 한 번만이 아니었다. 사내의 손에 들린 참나무로 만든 진압봉이 내 옆구리에서 춤을 추었다.

난 선량한 화가입니다. 아니 그냥 시민입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구뎃발이 내 전신

을 몇 번 걸어왔다. 가물가물한 정신 속에서 내 귀는 사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을 듣고 있었다.

화가 좋아하네. 미친 새끼. 가져다 실어.

거친 손이 내 몸을 질질 끌어가다가 물경한 살덩이들이 사과 껍질처럼 쌓여 있는 트럭에 던져 넣었다. 비릿한 피비린내가 내 의식을 죽였다.

정말이야, 제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줘.

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폭력으로 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선생님은 영터리였나요?

절반쯤 열린 앞가슴을 여미면서 여자가 뺨히 올려다보았다. 네 뜻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지금은 내가 너를 지배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증얼거렸다. 여자의 눈에 다시 안개가 끼고 있었다. 그건 체념이었다. 알아서 하세요. 여자가 몸에서 힘을 빼고 두 팔을 밑으로 늘어뜨렸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었다. 내 안의 얼룩무늬 사내가 사라졌다.

유리창을 흔들면서 바람이 불었다. 여자가 얼핏 강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초여드레 썸의 달이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비죽이 아틀리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달의 얼굴은 우중충했다. 그건 내 자화상이었다. 잠시 후면 관 속에 들어갈 주검처럼 검은 빛까지 돌고 있었다. 내게도 초생달을 바라보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던가? 그래, 그런 시절도 있었어. 밤 하늘의 별빛이 기쁨으로 내게 내려와 앉을 때도 있었고, 시멘트 담벼락 아래 핀 보랏빛의 어린 제비꽃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져 하루내 이젤 앞에서 보라색 물감을 화폭에 칠한 날도 있었다. 그런 내게 하늘은 늘 푸른 빛이었다. 설령 구름이 낀 날일지라도 내 눈은 구름 너머의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보고 있었다.

군에서 제대를 한 그 해의 국전에서 내가 그린 칠십년대의 자화상인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에 대통령상이 안겨진 것은 나를 하루아

침에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로 만들어 주었다. 신문마다 실린 그림과 우수에 잠겨있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내 얼굴은 수심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에 화기마져 돌게 했다.

이, 이것이 참말로 너란 말이나?

예, 어머니. 내일은 텔레비전에도 나올 거예요.

내가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하이고, 내 새끼, 장허구나, 장혀. 지하의 니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꼬.

어린 자식 하나만을 바라고 살아온 이십 년 세월의 눈물과 외로움, 잠자리의 쓸쓸함까지 씻어내듯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그 눈물까지도 내겐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건 고통의 시작이었다.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한 그 해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다분히 행운이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영혼이 돌보아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내 수상 작품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은 아버지를 그린 것이었다. 흐릿한 안개 속에서 아버지가 빛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예비역 영관을 상사로 모신 아버지가 영똥하게 수뢰 사건을 뒤집어쓰고 오월이면 빨간 넝쿨장미가 유난히도 곱게 피는 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것은 내 나이 여섯 살 때였다. 꼬박 일 년을 채우고 장미꽃이 피는 계절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다음 해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핀 오월 어느 날 올해는 장미꽃이 유난히도 붉구나, 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대머리 국장은 끝내 문상조차 오지 않았다. 내가 철이 좀 들었을 때, 어머니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던 화가의 길을 결심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때문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하던 해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예사롭지 않은 죽음의 내력을 듣고 내가 밤새워 다짐했던

생각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의식하고, 권력의 집단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하면 가슴에서 열기 같은 것이 솟아 올랐다. 붓을 쥔 내 손이 신명나게 움직여 주었다.

그래, 그림을 그리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세계를 화폭에 옮겨 보자. 아버지의 모습도 그려야지.

어머니는 늘 한숨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림에 미친 내 삶은 어머니의 한숨에 반비례해서 활기에 넘쳤다. 내가 붓을 쥐고 이젤 앞에서면 시든 꽃잎도 부시시 살아나고,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국민학교 삼학년 때의 새침떼기 얼굴도 살았을 적의 새침떼기 모습으로 펄펄 뛰쳐나오고는 했다. 그래서 내 그림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어머니조차도 참, 네 손은 요술쟁이구나. 진짜 화단에 피어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그려낼 수 있다니. 언젠가는 저 장미도 한 번 그려보렴. 니 아버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꽃이니라, 하고 대견해 하기까지 했다.

그림에 대한 그런 열정이며 신명이 식은 것은 순전히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 때문이었다.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 동안 미술평론가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내 그림을 재단하여 가지고는 안개에 쌓인 현실을 교묘히 조합해 낸 작품이라느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신으로 느껴야 되는 중압감의 표현이라느니, 우리 나라의 서양화단에서 색감의 배합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작품이라느니 하고 찬사를 남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동은 낮선 이질감으로 바뀌어 갔으며, 그림의 분위기는 점점 내게 아주 생소한 모습으로 다가와 당혹감만 안겨 줄 뿐이었다. 폭력과 음모를 안으로 감춘 시대의 수상한 분위기를 안개빛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 아버지의 모습을 빛으로 처리한 내 그림이 평론가들의 붓끝이며 입살에 올라 짓이겨지면서 전연 엉뚱한 작품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작품은 어찌다 꿈속에

서 만난 내 얼굴처럼 낮설었다. 이건 내 작품이 아니야. 그 겨울 동안 거의 이젤 앞에 서지 못했다. 거리에는 날마다 안개가 끼었고, 안개 속에서는 수상하고도 거친 발소리들이 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룻밤 새에 수십 개의 별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신문은 유난히도 검은 빛이었다. 이단 통으로 뽑은 먹빛 제호의 활자는 그대로 시대의 대변이었으며 시대에 대한 협박이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살아남을 천구백팔십년도의 자화상이었다. 핏빛으로 뚝뚝 떨어지는 넝쿨장미 꿈을 거의 매일 꾸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버지가 심어놓은 우리집 늙은 넝쿨장미가 몇 개의 꽃망울을 키워가고 있을 즈음이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선생님이 살려주신 목숨이잖아요.

여자가 두 팔로 내 목덜미를 부들켜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살려 준 목숨? 언제 내가 그런 거룩한 일을 했지? 여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다. 바람은 아직도 거칠게 불고 있었다. 얼어붙은 한강의 얼음이 갈라지는지 짹하는 소리를 냈다. 나를 짐승으로 몰고 가던 알콜 기운도 말끔히 가시어 있었다.

내 눈이 여자가 뛰어내리려던 한강 다리의 어느 부분인가에서 멈추었다. 그 날 여자는 다리의 난간에 서서 절박한 몸짓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 건너 포장마차에서 소주 세 병으로 혈중 알콜 농도를 높이고 돌아오는 내 눈에 여자가 철제 난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안돼.

고함에 놀란 여자가 그대로 강물로 뛰어내릴까 싶어 속으로만 울부짖으면서 차도를 가로질러 그녀에게 달려갔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차들이 살인적인 속력으로 질주를 하고 있었다.

이러지마.

순간적으로 그녀를 나누어챌 내가 가쁜 숨을 헐떡이며 호통을 쳤다.

호호, 댁이 뭔데요? 댁이 뭔데 내 목숨에 간섭을 하시나요?

여자가 금방 따귀라도 한 대 올려붙일 기세로 앙칼지게 항의를 해왔다. 그런 그녀의 입에서 잘 익은 감홍시 냄새가 났다. 술 취한 내 코가 맡을 수 있는 술 냄새라면 그녀가 나보다 더 많이 마셨다는 얘 기일 수도 있었다.

술 몇 잔에 버틸 수 있을 만큼 하찮은 생명이라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술이 깨고 나면 오늘밤의 행위가 우스워 지겠지. 집이 어디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 순간이었다. 여자가 내겐 머물 집이 없어요, 하고 허물어져 온 것은. 여자의 몸은 가냘팠다. 힘주어 안으면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모습이었다. 절 이대로 놔두세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길이예요. 여자가 얼핏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는데, 앙칼진 목소리와는 달리 눈빛은 초점도 없이 희멀뜩했다.

내 아틀리에로 가자구. 여기서 가까워.

아틀리에? 아저씨는 화가세요?

아주 짧은 순간 여자의 눈을 스쳐가던 희미한 빛줄기 속에서 내가 한때 내 반쪽이라고 믿었던 영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만남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 화가야. 자화상도 제대로 못 그리는.

여자의 허리를 안아 일으키면서 내가 신음처럼 내뱉었다.

슬픈 화가네요.

여자가 중얼거리면서 순순히 내 걸음에 발을 맞추었다.

아저씨는 잘 팔리지 않는 화가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어두운 그림이라면 아무도 거실에 걸어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틀리에 들어서자 자살을 시도했던 여자답지 않게 그녀가 내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 앞에서 이죽거리고 나왔다. 그러면서도 제법 진지한 모습으로 내 그림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 그녀도 한때 그림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 쪽으로 와. 주검의 모습들은 볼 필요도 없으니.

봄 이후 한 번도 쓰지 않던 전기장판의 코드를 꽂으며 내가 손짓을 했다.

이상하죠? 저기 백호짜리 그림 말예요. 어쩐지 눈에 익어요.

내 쪽으로 오면서 그녀가 고개를 가우뚱했다. 백지장처럼 하얗던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저 희멀뜩한 눈빛만 아니면 영락없는 영아구나. 그런 생각이 또 내 뇌리를 난도질치며 흘러갔다.

소주나 마시자구.

소주병을 꺼내어 이빨로 마개를 따면서 내가 말했다.

흐흐. 소주 좋지요. 아저씨, 우리 누가 더 많이 마시는가 내기할까요? 이래봐도 전 아직까지 술마시기에서 사내들한테 져 본 역사가 없다가요.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몸을 지키는 방법? 술집에라도 나간다는 말투로군.

내가 소주잔을 권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그래요. 전 술집 여자예요. 제게 짐승의 눈빛을 보내오는 사내들은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섹스부터 죽여놓지요. 강 건너에 있는 빠·텐다라고 아시나요? 저녁마다 거기에서 사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먹고 살지요.

여자의 동공에 다시 안개가 끼었다. 내 가슴에서 발작처럼 갑갑증이 일어났다. 소주병을 들어 병나발을 부는데, 그녀도 후후 웃으며 소주병을 하나 치켜들었다. 여자가 눈물을 보인 것은 그렇게 세 병의 소주를 마시고 난 다음이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마시던 술병을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내 가슴에 얼굴을 처박고 훌훌훌 흐느끼기 시작했다. 가버렸어요. 모두 가버렸어요. 한 새끼는 군대에 가서 뒤통고, 한 새끼는 나한테 사기만 치고 다른 여자한테로 날아가 버렸어요. 밤마다 사내들 속에 살면서도 내겐 사내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아까 말예요. 아저씨가 씩씩한 왕자님으로 보이더라니까요. 아저씨 내 옷을 벗기고 싶지 않나요? 내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내 몸뚱이를 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여자가 스스럼없이 가슴을 열어젖혔다. 내 눈에 그녀가 영아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 전부터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그런다면서요? 군대에 입대하기 전날 밤이면 자기의 여자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어차피 전 영우씨의 여자예요. 그날 밤 영아는 망설이는 나를 오히려 부추겼다. 내가 자기를 갖지 않으면 마음뿐인 소속감이 언제 도망갈지도 모른다면서.

여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내 앞에 섰다. 내 팔 안에서 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때의 왜소했던 느낌과는 달리 그녀의 몸은 의외로 풍성했다. 그랬다. 그것은 부끄럼도 없이 내 앞에서 당당하게 옷을 벗고, 군대 생활이 고달프고 쓸쓸할 때면 지금의 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몸에서 힘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하던 영아의 몸이었다. 그만큼의 싱싱함과 그만큼의 굴곡과 그만큼의 빛나는 살빛을 가지고 있었다. 여, 영아, 어느 순간 그 여자를 내 가슴에 넣었다. 내가 누가 되건 상관없어요. 내게 있어 선생님이 세 번째 남자라는 사실 외에는. 그녀가 술 냄새 풍기는 입술로 내 귀에 속삭였다. 그래, 난 내 영아야. 고맙구나, 이렇게 와 주어서. 그러나 그날 밤도 내 색스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추워요, 선생님.

여자가 앞가슴을 여미면서 침상에서 부시시 일어나 앉았다. 그녀를

홀끔 돌아보는 내 눈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자화상들이며 쓰러져 뒹구는 이젤이 들어왔다. 도루코 날로 난자당한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은 바람이 불 때마다 필러거렸다.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것일까.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아틀리에가 왜 이렇게 되었지요? 도둑이라도 들어왔던 것인가요?

가난한 화가의 방에 훔쳐갈 것이 뭐가 있다고 도둑이 들겠어? 내 스스로 치룬 전쟁의 상흔이야.

전쟁?

그래, 전쟁. 십 년이 넘는 세월을 난 날마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 내 안의 얼룩무늬 사내와.

얼룩무늬 사내요? 혹시 광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광주? 너도 죽고 싶니?

내 뇌리에 다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던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귀청을 두드렸다. 그러자 내 의식을 죽이던 피비린내가 콧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내 눈빛에 광기가 번뜩인 모양이었다.

무서워요. 그런 눈빛. 조금 전 가게에서 봤던 눈빛 같아요. 가게에서 광주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눈빛이었어요.

여자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몸서리를 쳤다.

난 빠·텐다 이젤 앞에서 왼손으로 자화상을 그리다가 뇌리에 어른거리는 얼룩무늬에 순간적인 광기와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미친놈처럼 달려간 곳이 그 곳이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스스럼없이 다가와 내 곁에 앉았다.

이상하지요? 참. 선생님을 뵈 때마다 선생님의 죽은 섹스를 살려내고 싶어 안달이 나니 말예요. 선생님의 섹스가 살아나면, 오른쪽 팔목의 신경도 살아날까요? 그러면 못다 그린 그림도 그리게 될 것 같아

요. 기적 같지만.

그녀가 싱거운 웃음을 흘리면서 손 하나를 내 가지런이 사이로 집어넣었다. 이러지 마. 내가 거칠게 밀어 내자 그녀가 슬며시 손을 빼냈다. 그러면서도 새파랗게 어린 서빙 녀석이 와서 몇 번이나 컷속말을 하고 갔는데도 그녀는 즐기차게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난 혼자 마셔도 괜찮으니까 다른 자리로 가보라구.

아니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선생님은 일 주일에 겨우 한 번밖에 안 들르시잖아요. 오늘 하루쯤 돈을 안 벌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내저었다. 술병이 세 개째 들어왔을 때였다. 내 눈앞에서 불빛들이 호랑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가버린 영아의 그림자가 결핵균이 되어 내 가슴을 갉아먹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거친 손 하나가 덥석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너, 죽고 싶냐? 지금. 왜 오라는데 안 오는 거야? 너, 내가 누군 줄 모르는 모양인데, 이래봐도 이년아, 수십 번도 더 공중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내린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너 같은 계집들은 눈 깜짝할 새에 죽일수도 있다가.

거친 손의 사내가 그녀를 확 나꾸어채면서 이죽거렸다.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술집 여자지만 싫은 남자와는 함께 술을 안 마실 자유는 있다가요.

그녀가 기죽지 않은 모습으로 항의를 했고, 사내가 자유? 자유 좋아하네, 하면서 먹이를 노리는 살랭이의 눈빛으로 팔 하나를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내가 사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러지 마십시오, 손님.

이 새끼는 또 뭐야?

사내가 그녀를 확 밀쳐내면서 주먹으로 내 면상을 갈겼다. 눈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아주 빠른 순간 내 뇌리에 얼룩무늬의 사내가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 사내가 두 번째의 주먹을 내미는 순간 내 무릎이 방심하고 있는 놈의 사타구니 사이를 여지없이 올려챘다. 썩은 나무 등지처럼 놈이 내 발 밑에 얼굴을 묻었다.

내 약혼녀란 말야. 다시 또 귀찮게 군다면 네 대갈통에 구멍을 내주겠어. 그뿐인 줄 알아? 네 여편네의 가랭이를 찢어줄 수도 있다가. 어서 못 꺼져? 아예 고자를 만들기 전에.

내 안의 얼룩무늬 사내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말했다. 사내가 잔뜩 겁을 먹은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너, 새끼야? 팔십년도의 광주를 알아? 얼룩무늬니까 잘 알겠지? 시체더미 속에서 삼 일간을 묻혀 있었어도 끄덕 않고 살아난 목숨이야. 어디서 까불어,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 이래봐도 사람으로 둔갑한 귀신이야. 너 같은 놈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하는 악당이란 말이야.

내가 다시 한 번 쥐어차 주겠다는 듯이 발 하나를 치켜들었다.

미,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내가 개처럼 기어서 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다. 사타구니 사이에 이물질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은 거부감이 느껴졌다. 그러자 내 뇌리에 번개 같은 빛줄기 하나가 스쳐갔다.

아, 살아났구나.

그래, 고맙구나, 고마워. 내가 중얼거렸을 때였다. 느닷없이 내 귀에 영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처음에는 영우씨의 몸이 어떤 상태건 곁에 지키고 있으면서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고 작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우씨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그리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영우씨 앞에서 늘 밝은 얼굴만 하고 있을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마음은 영우씨 곁에 두고 몸만 떠날게요. 대신 영우

씨가 화가로서 성공하길 빌겠어요.

시체더미에서 삼일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시립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내게 의사가 어찌면 영원히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선고를 내렸을 때, 그림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빠진 내게 제가 영우씨의 오른손이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림은 왼손으로도 그릴 수가 있다고 위로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보다도 몸이 더 뜨거운 여자였다. 오른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거죽은 멀쩡한 모습으로 퇴원한 내가 그 뒤에 가진 몇 번의 잠자리에서 사내 구실을 못하게 되자 나의 절망보다 영아의 절망은 더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보내 주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변신이 특별히 상처로 남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영아가 내 곁에서 훌쩍 떠나 버리고 만 뒤의 허전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요골 부위의 상처, 얼룩무늬들은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요골 부위를 향해 곤봉질을 해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악스런 파괴자로 변해 내 섹스까지 망가뜨리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파멸도 결국에는 얼룩무늬들의 소행이 아닌가.

양손이 다 없어서 발가락이나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영우씨는 왼손으로나마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예요. 영아는 이따금 위로의 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로 내게 용기를 주곤 했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었다. 아무런 죄도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어머니의 가슴앓이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무슨 업보나 되듯이 대를 물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 어머니는 몸을 사릴 만한 자제력마저 잃어 버렸다.

척일 놈들, 차라리 나를 척일 노릇이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팔 병신이 되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깁깁대다가 절망에 빠져 하루에도 몇 번씩 붓을 던지고 짐승처럼 울
부짖는 모습에서 어머니의 가슴에 자리한 응혈은 두께를 더해 갔던
것이다.

그 여자를 잊어 뿌러야, 어머니는 영아가 내 곁에서 자취를 감춘 걸
알고도 짐짓 모르는 척 단청만 부렸다.

너허고 오래오래 살라고 했는디, 인자는 가야 혈랑가 보다. 잊어 묵
그라, 영우야. 잊어 묵지 않고 너 혼자 아파하면 결국엔 너만 손해여.
너도 알다시피 신문을 보나 텔레비전을 보나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찍인 놈들이 더 멍멍거리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한테 이런 소리
까진 안 헐라고 했는디, 나쁜 짓은 지가 다 해쳐 묵고 그 죄를 네 애
비한테 떠넘긴 놈한테 천벌이 무신 놈의 천벌이든…….

그런 원한도 다 잊어 빨그라. 그걸 가슴에 담고 있으면 나처럼 암탱
이가 생겨 제 명대로 못 사는 갑드라.

그런 어머니한테 나는 할 말이라곤 없었다. 시한부 인생. 간암 3기
라는 진단.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미움 그 자체를 운명으로 치부하려는 것
을 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입에 발린 거짓말도,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는 위로의 말도, 가슴에
증오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약속도 할 수가 없었다. 알
았어요. 어머니. 내가 한숨처럼 내뿔었을 때였다. 아가, 저승에도 빨
간 장미꽃이 피어 있을꼬냐? 내가 귀를 바짝 들이대야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증얼거린 어머니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느그 아버님이
장미꽃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꼬냐?

어머니의 눈을 왼손으로 감겨 드리면서 내가 나직히 증얼거렸다.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도 빨간 장미는 피어 있을 거예

요. 장미꽃 다발을 안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데요. 내 눈물 몇 방울이 어머니의 볼 위에 떨어졌다.

영아야, 나는 조그맣게 부르짖었다.

밋밋해진 사타구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영아가 내 쪽을 향하여 웃음을 던지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어쩔 요골 부위의 통증도 사라질런지 모르지. 뭐라고?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오랜만의 만남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다. 오랫동안 잠자리를 같이 해 온 사이나 된 것처럼 스스럼없이 대했기 때문에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내 어깨를 짚고, 잠깐 전과는 다른 근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조금치도 개의할 필요가 없었다.

너무나 무서운 얼굴이에요. 그녀가 질겁을 하며 두어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어서 내 아틀리에로 가자구.

나는 막무가내로 그녀의 팔목을 우악스럽게 나꿔챘다.

내가 누구죠? 그녀가 조용한 눈빛으로 물어 왔다.

영아.

그녀가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대꾸했다.

얼마간의 실갱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린 듯 내가 하는 대로 자신을 맡겨 놓은 상태가 되었다. 그녀를 거칠게 침상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께에 내 상체를 디밀자 댁이 뒤편에 내 목숨에 간섭을 하나요? 할 때의 그 눈빛의 양칼진 저항을 해 왔다.

싫어요, 대역은. 그날 밤에도 선생님은 나를 영아라고 불렀어요. 난 내 뒤편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내게도 이름이 있으니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영아가 아닌, 진아라는 이름을요.

모델대 위에 오도카니 올라앉은 여자가 입술이 새파래진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쪽을 보아, 라고 내가 소리쳤다. 황혼의 악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벽면의 거울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이올린을 들고 옛날의 환상 속에서 좀처럼 깨어날 줄 모르던 노인의 모습은 바로 내 자신으로 탈바꿈했다는 이야기일까?

뭔가 또 그리고 싶어요? 여자는 눈으로 물어 온 게 아니라 몸짓으로 물어왔다. 분명한 모델. 얼마만인가.

너를 그려야겠어. 얼마만에 만난 참한 모델인데.

이제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세요. 여자는 모델대에서 내려와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녀의 눈빛 속에 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여자가 찢긴 그림조각들을 붙이는 시늉을 하며 말했다.

선생님을 처음 뵈던 날이었던가요. 이 그림이 눈에 많이 익는다고 했지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던 국전도록에서 보았지 뭐예요. 그때 미술 선생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아요. 대학 재학중에 국전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천재 화가였는데, 팔십년대의 광주가 화가한테서 그림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영혼까지 빼앗아갔다구요.

그런데 몇 번이고 만나 뵈다 보니까 선생님이 잃으신 것은 그림뿐만이 아니더군요. 영아라는 여자는 물론 삶에 대한 투지마저 잃어버리고 없더라구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차피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요? 절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기억하세요. 선생님을 안 만났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런지도 모르죠.

그만두지 못해, 더 지껄이면 널 죽여 버릴런지도 몰라.

이번에는 내 얼룩무늬 사내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정말로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여자가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내가 왼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어디 때릴 테면 때려 보세요. 침상 밑의 수면제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절 영아라고만 생각하고 싶으시나요? 정 그렇다면 ‘진아’라는 여자가 영아라는 여자로 둔갑해 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선생님의 의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시대의 자화상이건 선생님 자신의 자화상이건 어둡고 우울한 자화상이 아니라 밝은 색깔의 자화상만 그럴 수 있다면 제 몫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까짓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란 어차피 붙이기 나름 아닌가요? 저도 한때는 화가가 꿈이었다구요. 미술 선생님의 콧수염이 좋아서 짝사랑을 하기도 한. 우선 저를 한 번 그려 보실래요. 이래봐도 내 육체에 정신을 놓아버린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대구요. 어서요.

우리 술집에서 얼룩무늬 출신의 악당을 작살내던 폭력이라도 휘둘러 보시던지.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기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리고 싶나요?

모델대의 여자는 내 눈동자에서 풍겨 나오는 푸르스름한 광채, 살인이라도 저지르고야 말 무서운 시선을 거리낌없이 받아넘겼다.

무엇을 그리고 싶죠? 자화상? 모델대의 여자는 다정스럽게 묻고 있었지만 목소리엔 울음이 가득했다.

저도 옛날엔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반쯤 벗겨진 상체의 옷을 그녀는 급하지 않게 아주 서서히 벗어나 갔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여자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벽면에 걸린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새롭게 느껴지는 그녀의 싱싱한 육체에 넋을 잃은 채 욕망으로 뒤엉킨 한 사내의 모습만이 보

일 뿐이었다. 추위에 찌들은 황혼의 약사도 안 보였다. 이따금 내 의식의 저편에서 웅얼대던 얼룩무늬의 사나이도, 그리고 영아의 모습도. 진아? 내가 조용히 뇌까렸다.

그만해. 옷을 벗지 않아도 내 눈에는 다 보여.

여자를 가슴에 넣었다. 놀랍게도 아래로만 처져 있던 내 손이 여자의 허리께에 있었다.

어마, 선생님. 그녀가 울먹였다. 나는 그녀의 허리께에 힘을 가했다.

가슴만 훈훈해진 게 아니었다. 죽어 있던 사타구니가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었다.



송혁호

전남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저서로는 『한국현대문학론』 『한국현대문학의 비평적 연구』 『한국현대소설의 해설』 『한국현대소설론 연구』, 현재 아주대학교 교수

평론



소외와 길찾기의 어려움

소외와 길찾기의 어려움

—김소진론

1. 들어가며

김소진은 90년대의 가장 촉망받던 소설가였다. 1991년 〈경향신문〉에 「쥐잡기」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한 이후 어느 작가 못지 않은 소설적 표현력과 기층 민중들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를 한국문단에 굳게 뿌리내렸다.

1963년 강원도 철원 출생. 1983년 서울대 영문과 입학. 그의 이력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 두 구절은 그의 성장 과정과 세계관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철원은 분단의 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전쟁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의 고향을 지키거나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기 위하여 몰려사는 역사의 현장이다. 80년대 서울대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현장인 아크로폴리스를 가지고 있다.

분단의 아픈 상처를 뒤로 하고 상경하여 원대한 이상을 품고 살았을 그에게 80년대의 서울대 체험은 정상적 삶을 방해하고도 남았으리라.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인문관에서 공부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이 아니면 생산의 현장으로 내몰았다. 김소진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천재는 명이 짧다고 했던가?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우리가 멩에처럼 짙어지고 다녀야 하는 분단의 비극과 산업화의 그늘,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따뜻한 인간애를 찾아가는 여정을 심도있게 그려낸 그의 문학적 성과는 기념비적인 것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 여정은 소설적 여정이면서 작가의 여정이기도 했다. 분단이 가져다 준 상처를 안고 성장한 소설적 자아는 부친과의 갈등으로 혹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범죄 행위로 고통을 받지만 원초적 고향을 찾으려는 행위 즉 길찾기를 통하여 성장해 간다. 그러한 경향은 「길」과 「원색생물학습도감」에 잘 나타나 있다.

2. 분단의 현실과 길찾기

「원색생물학습도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관과 그에 대한 인식에 토대를 둔 소설적 자아의 성장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때문에 ‘나’의 여정은 상징적이어서 얽히고 설켜 매듭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매듭의 양편에는 아버지의 육식과 ‘나’의 춘화장사가 위치한다.

아버지의 육식은 형의 죽음이나 어머니의 외상과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곤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징적 의미는 다분히 이중적이며 상호 대립적이다. 곤충과 인간이 모두 귀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점과 그들은 모두 동족상잔의 엽기적 존재라는 점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암시되고 있다.

사건은 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형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독재자였다. 어느 ‘하루는 영어 단어 스무 개를 못 외운다고, 또 수학공식을 까먹었다고 두들겨패거나, 교회 마당에 올라가 나는 앞으로 개같이 살기로 했다고 외치게 만들’기도 했다. 동료들에게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한을 안으로 삭이면서 이루어진 자기희생적 행위이다.

그 외상은 아버지와 송자 엄마의 외도를 눈치챈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발을 헛디더 생긴 것이며, 후에 다시 도져 병원을 찾지만 사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푸념섞인 말을 한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외상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를 폐가로 보냈을까? 폐가는 무당과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중간에 위치하며, 무당과 송자 엄마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무당은 현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과거의 유물이다. 송자 엄마는 전후의 개방화 물결을 타고 들어온 반윤리적 성행위를 서슴치 않는 여인을 표방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훼손된 현재의 남편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냄, 송자 엄마를 통하여 형을 만나고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나의 춘화 장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서사적 자아는 왜 춘화 장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춘화 장사가 형이 죽은 다음에 잘 되게 되었을까?

‘나’는 성장기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는 가부장제적 권위의 상징이지만 분단의 상황에서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물이다. 동족을 살상한 자들에게 감히 반발을 하지 못하고 그에 안주하고 만다. 그리하여 형과 ‘나’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어머니는 인종과 한으로 점철된 삶을 영위하는 인물로, ‘나’를 ‘레지스탕스 같은 아이’로 성장하게 만든다. 형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성세대에 반발하지만 ‘나’에게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개처럼 살라고 강요한다. 서점 아저씨는 ‘나’에게 춘화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춘화 장사는 아버지의 패배주의, 어머니의 순응주의, 형의 이상주의, 아저씨의 상업주의가 낳은 기형적 삶의 방식으로 훼손된 세계에서 ‘나’가 택한 최초의 길찾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의 죽음은 현실주의에 대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이상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점차 춘화 장사가 ‘더러운 짓’이라는 걸 알기에 이른다. 그 즈음 칠교 패거리들이 춘화 장사를 가로챈다.

칠교 패거리들이 개입을 했던 그렇지 않았건 진정한 길이 춘화 장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나’의 현실주의는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다. 현실주의적 종언과 더불어 그는 아버지의 길찾기의 어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칠교 패거리들로부터 린치를 당한 다음에 그가 아버지가 있는 폐가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되어 폐가에 찾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자신의 과거를 연상시켜주는 아들의 외상을 정성껏 쓸어준다. 아들의 방문은 단절된 부자간의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되며, 상처 받은 자들간의 화해의 장이 된다. 서사적 자아는 어른들의 삶을 결눈질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어른들의 훼손된 삶을 부정하고 긍정하면서 차츰 세상에 눈뜨고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성장 소설로 볼 수 있다.

3. 산업화 시대의 길찾기

「길」은 서사적 자아의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 ‘길’과 ‘집’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처리된 소설이다.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회사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몸을 숨겨야 하는 현재의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하여 여인숙 ‘길’에 묵고 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현재의 서사적 자아가 찾아갈 집은 지선과

아내이다. 그런데 아내를 찾아가는 길은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봉쇄되어 있고, 지선을 찾아가는 길은 서사적 자아의 도덕성(EGO)과 사회적 통제 장치(SUPER EGO)에 의해 차단되어 있다.

길찾기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은 서사적 자아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길찾기를 연상하게 만든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어느 이층집에서 보름쯤 지내던 ‘나’는 아버지를 기다린다. 풍비박산이 난 집 안에서 어쩌면 ‘나’는 짐스러운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외가로, 누나는 공장으로, 아버지는 수급하러 다니는 상황이었다. 그 집에는 갈고리팔을 한 상이 군인과 그의 아내이기에는 너무 젊은 여자 그리고 한 마리의 새가 살고 있었다.

서사적 자아는 어느 날 몰래 상이 군인이 사는 이층 방으로 갔다가 그들의 성행위를 목격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려다가 이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병이 난다. 그들은 ‘나’를 치료해주고 위로하기 위하여 새를 가져다 준다. ‘나’는 차츰 상이 군인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지지만, 상이 군인을 압도하는 젊은 여성의 성행위를 연상하고 그녀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는 아무 것도 먹지를 못하고 양파와 고추장만을 먹는다. 자신의 처지를 새와 동일시하여 어느 날 새를 죽인다.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서사적 자아가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구원으로 ‘나’는 길을 찾게 되었다.

서사적 자아의 현재와 과거는 얽히고 설킨 ‘나’의 인생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달은 ‘나’는 길을 찾기 위하여 이제는 추억 속이나 아련히 남아있을 목로 주점을 찾는다. 거기에서 훼손된 삶(누런내)을 초월하여 인간적 냄새(양파 냄새)를 물씬 풍기는 주모를 만난다. 그녀와의 만남은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복원해 주고, 너무나 인간적인 떠돌이 인생들을 만나게 해준다. 메기입 사내,

교장 선생님, 주모가 그들이다.

메기입 사내는 송장 타령만 하는 난지도의 경비원이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체를 치운다고 푸념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이 어디까지나 공무원임을 애써 강조한다. 주모의 눈길을 피해 슬쩍 고기를 자신의 입안에 던져 넣기도 하는 그를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들렀던 쓰레기 손수레 보관소 소장집의 초상을 되살린다. 처음 냉랭한 사이였던 ‘나’와 그는 기차를 놓이면서까지 기다리고 등을 두드리면서 엉너리를 떨만큼 가까워진다.

교장 선생님은 정년 퇴직한 허우대 좋은 노인으로, 아들 내외에게 퇴직금을 몽땅 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찬밥 신세’의 인물이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이상적인 세상과는 다른 현실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아간다. 술잔을 앞에 두고 안주만을 집적거리면서 훼손된 세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교육이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

주모는 항상 양파조각을 깨물고 있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손님들에게 어김없이 ‘놀로 원이려구’라는 독특한 어투를 구사하는 인물이다. 소설의 말미에서 서사적 자아가 외상을 요구했을 때도 ‘놀로 원이려구’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린 목로주점의 인간적 정서와 주모의 따뜻한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을 서사적 자아는 누런내를 뚫고 풍겨오는 양파 냄새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훼손된 세계에서 버림받고 길을 찾아 배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한자의 모습—한숨, 눈물, 비탄, 뉘두리보다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사적 자아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목로 주점을 찾았고, 지선을 찾아가고자 했지만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점차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다.

4. 나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혹은 후기산업사회라고들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인간화, 여성의 자아 신장과 남녀간의 갈등, 불륜과 정신분열증, 소외 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현실이 소설의 중심적 제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소진의 소설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중요한 제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김소진은 남북 분단의 문제까지를 다루면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문제—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의 내면에 짙게 깔려 있는 소외와 그들의 길찾기—를 즐겨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는 여행이 시작되었으나, 길이 끝나버린 우리 시대의 비극적 삶을 인정미 넘치는 구수한 언어속에 투영하여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회 원 주 소 록

이름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임 보	충북대 인문대 교수실	02-993-3250	현대문학
조태일	광주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실	062-670-2606	경향신문신춘문예
고재종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0688-62-8379	실천문학
차창룡	(주)금호문화	02-924-6165	문학과사회, 세계일보신춘문예
강동식	강남구 개포동 우성8차	02-573-5222	장르문예
김영박	북구 두암동 880-12	062-265-1073	현대시학
김정숙	전남전문대	0688-60-5000	민족과문학, 자유문학
김진문	동구 학운동 715-3	062-227-6032	문학공간
서종규	동구 산수3동 두암타운	110-303 062-521-6112	한글문학
송미수	곡성군 입면 창립초등학교	0688-62-2760	무등일보, 여성신문여성문학상
신현영	남구 송하동 금호아파트	105-504 062-268-6418	문예연구
양은찬	동구 대의동 2-1	062-232-9329	문학공간
윤석주	곡성군 겸면농협	0688-62-1009	시와사람
윤석진	각화동 무등파크 3-305	062-265-9413	광주일보, 무등일보 평론
이종인	북구 두암동 827-40	062-265-8021	문학21
차경섭	영등포구 신진3동 274-13	02-833-7468	시조문학
차의섭			
안태봉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0688-63-5616	
차운형	곡성군 목사동면 우체국	0688-62-1502	
남성숙	광주매일 문화부	062-361-0100	
공선옥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0688-62-1962	창작과비평
이재백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0688-62-1618	월간문학
송현호	아주대 국문과 교수실	0342-7154-845	

■ 편집후기

묵은 짐을 덜어낸 기분이다. 오랫동안의 숙제였던 『곡성문학』을 펴내게 된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고장 출신의 시인 故 차의섭 선생의 유고를 발굴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 하겠다.

거처를 옥과를 옮긴 고재종 시인의 우리 곡성문학에 참여하게 된 것을 박수로 환영한다.

한 가지 쉽지 않았던 것은 원고를 취합하는 어려움이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역 문학의 보다 성숙된 미래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

곡성문학 1997/제 4 집

1997년 12월 25일 인쇄

1997년 12월 30일 발행

지은이 ■ 곡성문화회원

편 집 ■ 이재백

펴낸곳 ■ 곡성문화원

인쇄처 ■ 시와사람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92-2번지

☎ 224-5319, 234-5319

팩스 227-5319

값 6,000원

* 이 책은 곡성문화원의 출판비 일부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